

DJDI

스마트 인재 관리를 통한 대전시 경쟁력 제고 방안

박 노 동
임 병 호
김 흥 태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임병호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김흥태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및 내용

- 대전광역시 인구변동을 자연증가와 인구이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추세를 예측
- 대전지역의 지역인재 유출입 구조 분석
-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 인구이동 예측
- 2030세대의 정주의식 및 정주여건 검토
- 연구내용 검토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참조하여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인재관리 방안 제시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전시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인재 유입 극대화, 인재 유출 최소화” 정책방안을 도출
 -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목표 설정, 세부 실천과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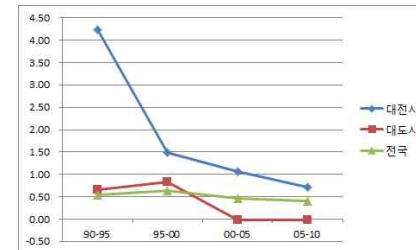
■ 연구 방법

- 대전시의 인구동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대전시 인재의 유출-유입 구조 분석
-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 인구(인재)동태 영향 분석
- 2030세대 대전광역시 인구의 정주의식 및 거주선택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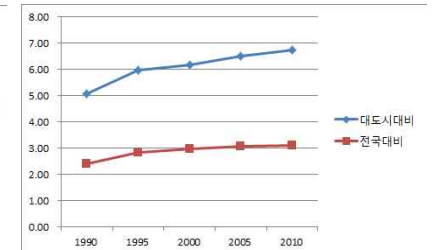
2. 연구결과 : 주요 연구내용

■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 1990년 이후 20년간 대전시 연평균 증가율은 대도시나 전국을 상회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인구비중을 놓고 보면, 대전시 인구규모는 전국 또는 대도시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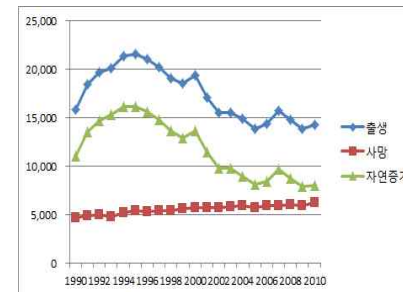
대전시 인구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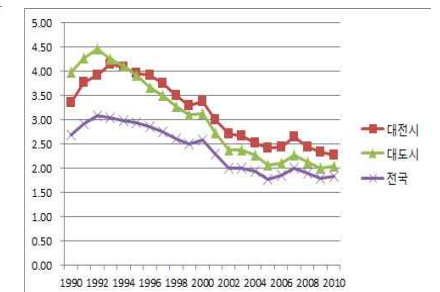
전국 및 대도시 대비 대전시 인구점유비율 변화

■ 자연적 인구 변화

- 대전시, 대도시 및 전국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출생자수/사망자수)을 도출하여 보면, 대전시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은 1993년부터 대도시 및 전국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전시 자연적 인구변화



출생 및 사망자 비율(출생자수/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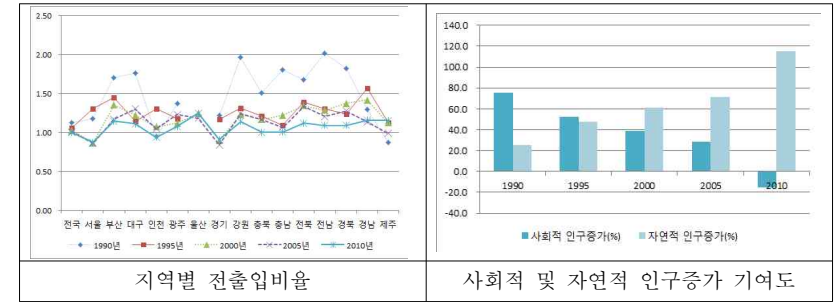
- 연령구조상 가장 어린 10대 미만의 구성비율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 대도시나 전국에 비해 어린이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비율은 2010년 기준 전국이나 대도시에 비해 높으나 30대 비율은 2010년 기준 전국 보다는 높되 대도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 인구변화

- 1990년 순인구 증가(전입인구-전출인구)는 33,463명으로 나타났고, 1995년의 경우는 17,750명 그리고 2000년은 8,576명, 2005년의 경우 3,210명으로 지속적인 순인구 증가의 감소를 보임
- 2010년에 접어들어서 대전시로의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사회적 인구의 감소를 나타냄
 - 1990년 이후 대전시로의 전입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시와 인접한 충청남도로부터 전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에서의 전입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전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전입과 유사하게 충청남도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는 전출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 대전시 순이동 인구는 지난 1990년에서 2005년까지는 순이동 인구에서 증가를 나타냈으나, 2010년의 경우 순이동 인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 인구증가의 둔화 및 감소 예상

- 대전시 인구증가가 인구구조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어, 향후 인구증가의 뚜렷한 둔화 및 감소가 예상됨
 - 대전시 인구증가가 사회적 인구증가(전출입) 보다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증가의 둔화 및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회적 인구변화에서, 대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로의 인구유출이 지속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구증가 및 변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도(직장 창출 등) 상승에 따른 전입인구의 증가가 요구됨



<그림 > 대전시 인구이동 특성

■ 인재 유출-유입구조 및 추세

- 전문대졸업자의 유출-유입구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순유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유는 직장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유출-유입구조 분석결과 또한 수도권으로 유출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졸업자나 4년제 대졸자의 인구이동 특성과 다른 양상으로, 대학원졸업자는 순유입자가 2009년에 391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부터의 순유입자수가 24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하여 경기도는 64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으며, 충남 또한 9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음
 - 대학원 졸업자의 신규취업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전문대졸과 대학졸업에 비하여 순유입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전시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음

■ **경력직 노동력의 유출 심화**

-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자의 유출구조를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단위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순유출자가 4,739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의 순유출자수가 1,10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924명, 광주 909명, 대구 818명, 충북 752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음
- 이에 비하여 충남지역과는 625명의 순유입자가 있었음
- 경력직 노동인력의 재취업의 특성은 순유출자의 수가 보여주듯이,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대전광역시와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음

■ **세종시 이전의향과 개인적 특성 및 주거만족도 관계있음 확인**

- 대전시민의 세종시 이전의향은 개인적 특성이나 주거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민 중 유성구나 서구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중장년층이 세종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상업시설과 녹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세종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인적 성향에 맞는 주거여건의 ‘맞춤적 개선’이 세종시로의 이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종시로의 적절한 지역교통수단 확보와 대전시민의 세종시 이주 완화 효과 예상**

- 또한 직장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대전시로 통근·통학하고자 하는 응답이 38.7%로 나타남
- 따라서, 대전시와 세종시로의 적절한 지역교통수단의 확보는 직장이동에 따른 주거이동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전시로 초기 이주하는 세종시 근무자에게도 지속적인 대전시에서의 정주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 예상**

-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충남도청 이전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총 8,0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원도심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기존 인재관리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그동안 지방 자치 행정의 핵심으로 인구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전광역시는 출산 장려금, 용품지원, 보험 및 저축가입 등 갖가지 보상책으로 인구 유입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
- 단기적 과제로 출산을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주소이전 및 전입 세대 지원, 장기적 과제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교육역량 강화 확대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최근 각 기초자치구에서 제시 및 실시하고 있는 인구관련 대책도 나열식이어서 그 추진 성과는 의문시 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대전광역시의 시책과 전국차원에서의 시책 검토 결과, 시사점으로 향후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우선, 인구관리 시책 담당자의 연속성과 업무 분장의 문제를 확고하게 정해야 함. 대전광역시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
- 효과적인 인구관리 시책의 전개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 인구정책이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

- 인구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이 시급함. 출산장려 관련 조례 뿐만아니라,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 지자체 간 협조체계가 필요함. 대전광역시 기초자치구와의 협조체계 뿐만아니라, 세종시와의 상생방안 등, 대전광역시가 거점지역으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제언 : 인재관리 세부 추진과제 제안

■ 단기적 과제

- 주소이전 및 전입세대 지원
 - 대전시민되기 운동과 연계하여 대전시 직장, 학업,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주소 이전 추진
 - 유동인구 대전시 전입신고 및 정착화 유도
 - 뉴스타트 서비스 제도 시행
- 인재 관리를 위한 통계 생산 및 활용
 - 인재유출입 구조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활용
 - 대전광역시 어메니티 통계를 구축하여 지역정착여건 우수성 홍보
- 세종시 입주민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유입촉진 방안
 - 세종시 초기 입주민의 입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략적인 유입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대전시 「시민 홍보단」 구성 및 출향 공직자 활용 전략 홍보
 - 세종시 초기 입주민을 위한 대전시 생활정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세종시 이주자 대상 생활정보 설명회 및 지역방문행사 개최
- 이주자 유입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대전시 「이주자 지원 조례」 제정
- 「생활정보 도우미」 시행 등 이주자 생활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중장기적 과제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세종시 이전 관련 배후지역 사업아이템 발굴 및 관련 기업 유치 추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지원-창업지원센터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인재 양성 및 활용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추진
- 관내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 효율화 방안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의무화
 -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 계약형 학과제 설치 - 주문식 교육 실시
 - 산학연계과정(IRP) 운영
 -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도입
-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역량 지원
 - 대전시 주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체계구축
 - 우수 연구인력의 조기 발굴 육성 체제 구축
 - 지역 대학생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제도 운영
 - 대학간 M&A, 대학내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한 지역내 대학구조 혁신
 - 전공별 연구회 포럼 구성, 활성화
 - 맞춤형 R&D 및 기술지도, 기술이전 사업
- 생활권 교통망의 통합적 구축
 - 세종시와 대전시 사이의 일일생활권 교통망 구축

○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체 주거지 조성

- 세종시 이전 수요자 맞춤형 주택 보급
- 세종시 인접 유성일대 쇼핑·위락·여가 기능 확충
- 광역적 의료·복지 서비스망 구축

○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체 교육서비스 제공

- 대전시 차원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대전시 일원의 각급 학교에 세종시 이·정주자 자녀의 취학 및 통학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내실화

-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성에 따른 인재유입 전략적 대응
- 국제비즈니스서비스 및 과학문화산업의 육성
- 도시형 첨단산업 집적지의 조성

○ Exciting 대전 프로젝트

-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재미와 흥분, 감동과 매력을 주는 도시의 면모를 구축
- F-문화 코드 반영 문화산업 추진

○ 도시계획과 행정의 광역화

- 세종시-대전시 부처간 업무협조의 새로운 모델정립
- 연계적 도시계획의 수립·정비
- 도시행정의 협력: 정보·인력의 교류 및 협의체의 가동

○ 우수인재 유인을 위한 문화정책

-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활동 활성화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향수 인프라 구축·운영
-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고등 문화예술 아카데미 설립·운영

- 다양한 국제적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이벤트 개최 적극 장려

- 밤의 교류 문화공간 활성화
- 시민 생활 공감 문화예술 환경 조성 정책 강화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먹거리와 명소 개발

- 표 목 차 -

- 목 차 -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 2 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 9
 제1절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9
 제2절 자연적 인구변화 12
 제3절 사회적 인구변화 16
 제4절 인재 유출-유입구조 분석 22

제 3 장 대전시 인구이동 예측 51
 제1절 세종시 건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이동 예측 51
 제2절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이동 예측 55
 제3절 2030세대 인재이동 예측과 유출자 특성 69

제 4 장 대전시의 스마트 인재관리 방안 79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시사점 79
 제2절 대전시 인재관리의 여건분석과 정책방향 85
 제3절 인재관리 세부 추진과제 92

참 고 문 헌 109

<표 2-1> 대전시 총인구 변화 9
 <표 2-2> 전국 및 대도시 대비 대전시 인구의 중요도 11
 <표 2-3> 대전시 자연적 인구변화 12
 <표 2-4> 대전시 연령대별 인구변화 14
 <표 2-5> 대전시 연령대별 인구 점유비율 15
 <표 2-6> 대전시 전출입인구 변화 16
 <표 2-7> 대전시 전입인구 17
 <표 2-8> 대전시 전출인구 19
 <표 2-9> 대전시 순이동 인구 20
 <표 2-10> 대전지역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현황 24
 <표 2-11> 2011년 대전지역 대학의 졸업생수 현황 24
 <표 2-12> 대전지역 대학 인력의 전공별 구성 25
 <표 2-13> 대전시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6
 <표 2-14> 대전시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26
 <표 2-15> 대덕연구단지의 기관과 종사자수 26
 <표 2-16> 지역별 전문대 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명) 31
 <표 2-17> 지역별 전문대 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 32
 <표 2-18> 지역별 4년제 대학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 35
 <표 2-19> 지역별 4년제 대학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 36
 <표 2-20> 지역별 대학원 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 39
 <표 2-21> 지역별 대학원 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 40
 <표 2-22> 지역간 경력직노동력 이동현황 (2010년) 43

<표 2-23> 지역간 경력직노동력 이동현황 (2010년)	44
<표 3-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6
<표 3-2> 세종시로의 이주의향	57
<표 3-3> 세종시로의 이주이유	58
<표 3-4>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59
<표 3-5> 세종시로 이주 시기	60
<표 3-6> 세종시로 직장이동 가능성	61
<표 3-7> 세종시로 직장이동 시 통근·통학 가능성	62
<표 3-8> 개인적 성향별 이주의향분석 : 교차분석	64
<표 3-9> 주거만족도와 이주의향 분석 : 교차분석	66
<표 3-10> 개인적 성향별 직장이동과의 관계분석 : 교차분석	67
<표 4-1> 타시도의 인구관리 시책 사례	83

- 그림 목 차 -

<그림 2-1> 대전시 인구증가율 변화	10
<그림 2-2> 전국 및 대도시 대비 대전시 인구점유비중 변화	11
<그림 2-3> 대전시 자연적 인구 및 증가율 변화	13
<그림 2-4> 연령대별 점유비율	15
<그림 2-5> 대전시 전입인구비율 변화	18
<그림 2-6> 대전시 전출인구비율 변화	19
<그림 2-7> 대전시 순인구이동 변화 추이 : 주요 도시 기준	21
<그림 2-8> 대전시의 인력 수요 구조	27

<그림 2-9> 대학 졸업 인력의 계층 분류	27
<그림 2-10> 대전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신규취업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29	
<그림 2-11> 대전지역 4년제 졸업생의 신규취업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 .. 33	
<그림 2-12>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생의 신규취업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 .. 37	
<그림 2-13> 대전지역 경력자의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	41
<그림 2-14> 대전지역 경력자의 근무지(유입) 추이 (구성비: %)	42
<그림 2-15> 2009년 대전지역 전문대졸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45
<그림 2-16> 2009년 대전지역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 46	
<그림 2-17> 2009년 대전지역 대학원졸업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47
<그림 2-18> 2010년 대전지역 경력자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48
<그림 3-1> 세종시로의 이주의향	57
<그림 3-2> 세종로의 이주이유	58
<그림 3-3>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59
<그림 3-4> 세종시로 이주 시기	60
<그림 3-5> 세종시로 직장이동 가능성	61
<그림 3-6> 세종시로 직장이동 시 통근·통학 가능성	62
<그림 4-1> 대전시 인구이동 특성	79
<그림 4-2> 대전시 생활 정보 자료 주요 내용	94
<그림 4-3> 대전지역 인재 양성 활용 플랫폼 개념도	97
<그림 4-4> 연구개발인력 수요 및 공급 체계	100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 인구성장에 있어 광역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인구폭발, 정확히는 인구의폭(population explosion)을 경험했지만, 2012년 현재는 전국 수준의 인구감소를 앞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내폭(population implosion)을 경험하고 있음
 - 출산력의 후퇴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 대전광역시 경계 안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어서, 시 경계 안에서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에서의 대응방안이 요구됨
-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 등 지역사회 환경변화로 인한 대전시 인구의 유출입 예상
 - 충남도청 이전, 세종시 건설 등 최근 우리시를 중심으로 대형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중
 -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우리시의 발전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
- 특히 현대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점점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우수 인재의 유출 최소화과 유입 촉진은 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함
 - 이제까지 대전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는 직관적인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유출의 구조나 그 인재유출의 규모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음

-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대전지역의 지역인재 유출구조를 분석하고 그 경제력 유출 규모를 추정하는 것과, 반대로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입의 경향 분석과 유출 최소화와 유입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특히,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방지, 우수 자원의 외부유출 최소화, 지역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등의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인재관리 방안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수행코자 함
 - 대전광역시 인구변동을 자연증가와 인구이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추세를 예측
 - 대전지역의 지역인재 유출입 구조를 분석코자 함. 인재 유출입의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신규취업에 의한 유출입경로와 대졸 학력 경력직의 이직 및 전직으로 인한 지역간 이동에 의한 유출입 경로로 제한하여 분석함
 -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 인구이동 예측
 - 2030세대의 정주의식 및 정주여건 검토
 - 국내외 정책사례를 참조하여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인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토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대전시의 인구동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대전시 인구변동 요인 중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5년간 대전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간 이동, 대전시와 타지역간 이동 추세를 분석
- 대전시 인재의 유출-유입 구조 분석
 - 대전시 인재에 대한 개념 및 범위 규정
 - 대전시 인재의 지역간 유출-유입 추세 및 구조 분석
-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 인구(인재)동태 영향 분석
 - 향후 인구예측에 가장 큰 외생변수인 세종시 이전, 충남도청 이전이 대전시 향후 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2030세대 대전광역시 인구의 정주의식 및 거주선택 요인 분석
 - 대전광역시 인구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핵심 인재 계층인 20대와 30대의 지역 정주 의식 및 거주선택 의식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인재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시책 발굴의 시사점 도출
- 대전광역시의 합리적인 인재 관리 방안 도출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전시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인재 유입 극대화, 인재 유출 최소화” 정책방안을 도출
 -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목표 설정, 세부 실천과제 제안

2. 연구 방법

-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략과제 발굴
- 장·단기 전략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 도출
- 일반적인 학문적 접근보다는 활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 강구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진행

제 2 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

.....
제1절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제2절 자연적 인구변화

제3절 사회적 인구변화

.....
제4절 인재 유출-유입구조 분석

제2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

제1절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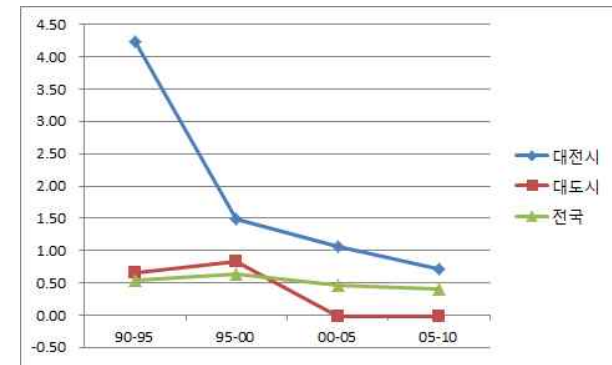
1. 대전시 총 인구 변화

- 1990년 이후 20년간 대전시 및 대도시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음
 - 대전시 인구는 1990년 약 100만명에서 2000년 약 137만명 그리고 2010년 약 14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이러한 대전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1995년간 4.23% 등으로 동기간 대도시의 연평균증가율 0.65%나 전국의 연평균증가율 0.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후 모든 기간동안 대전시 연평균 증가율은 대도시나 전국을 상회하고 있음

<표 2-1> 대전시 총인구 변화

구분	대전시		대도시*		전국	
	인구(명)	증가율(%)	인구(명)	증가율(%)	인구(명)	증가율(%)
1990	1,049,122	-	20,631,288	-	43,390,374	-
1995	1,270,873	4.23	21,304,195	0.65	44,553,710	0.54
2000	1,365,961	1.50	22,178,756	0.82	45,985,289	0.64
2005	1,438,551	1.06	22,145,918	-0.03	47,041,434	0.46
2010	1,490,158	0.72	22,116,456	-0.03	47,990,761	0.40

주 :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 : 1990과 1995년의 대도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이며, 이후는 울산광역시 포함



<그림 2-1> 대전시 인구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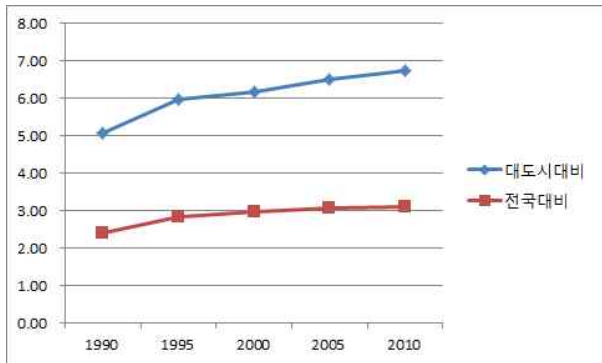
2. 대전시 인구의 중요도 변화

- 1990년대 이후 전국 및 대도시 대비 대전시 인구의 점유비율 즉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음
 - 1990년 전국대비 대전시 인구 점유비율은 2.42%였으나, 이후 전국의 인구증가율을 넘어서는 대전시 인구증가로 대전시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1995년 인구 점유비율은 2.85%, 2000년은 2.97%이며, 2005년 들어 대전시 인구 점유비율은 3.06%로 증가하고, 최근인 2010년의 경우 3.11%로서 1990년에 비해 0.67% 비중이 증가
 -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점유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5.09%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6.16% 그리고 2010년의 경우 6.74%를 차지하게 됨
 - 즉 대전시 인구규모는 전국 또는 대도시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

<표 2-2> 전국 및 대도시 대비 대전시 인구의 중요도

구분	대전시 인구				대도시* 대비 점유비중				전국대비 점유비중			
	인구(명)	인구(명)	점유비중(%)	비중변화	인구(명)	점유비중(%)	비중변화	인구(명)	점유비중(%)	비중변화		
1990	1,049,122	20,631,288	5.09	-	43,390,374	2.42	-					
1995	1,270,873	21,304,195	5.97	0.88	44,553,710	2.85	0.43					
2000	1,365,961	22,178,756	6.16	0.19	45,985,289	2.97	0.12					
2005	1,438,551	22,145,918	6.50	0.34	47,041,434	3.06	0.09					
2010	1,490,158	22,116,456	6.74	0.24	47,990,761	3.11	0.05					

* : 1990과 1995년의 대도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이며, 이후는 울산광역시 포함



<그림 2-2> 전국 및 대도시 대비 대전시 인구점유비중 변화

제2절 자연적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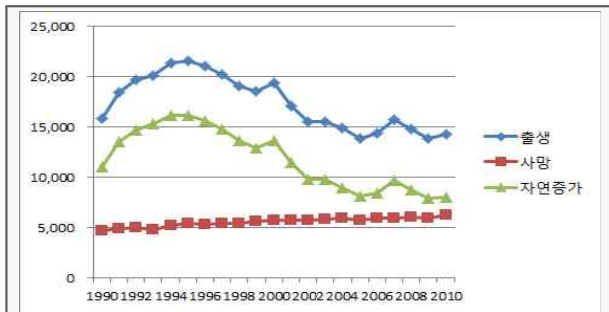
1. 출생인구 및 사망인구 변화

- 1990년 이후 대전시 및 대도시와 전국의 출생 및 사망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 >과 같음
 - 대전시 출생인구는 1990년 15,822명에서 1995년 21,619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02년 15,509명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인 2010년 출생자수는 14,315명임. 한편 사망자수의 경우 1990년 4,721명에서 1992년 5,027명으로 5천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0년의 사망자수는 6,311명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변화에 기초한 자연적 인구변화를 보면, 1990년 대전시 자연적 인구증가는 11,101명에서 1994년 16,166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의 경우 8,004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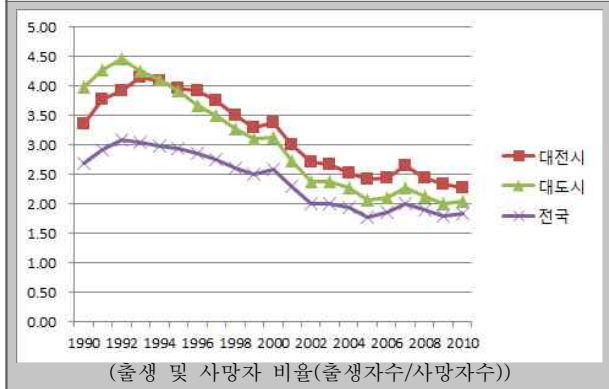
<표 2-3> 대전시 자연적 인구변화

구분	대전시			대도시			전국		
	출생	사망	자연증가	출생	사망	자연증가	출생	사망	자연증가
1990	15,822	4,721	11,101	326,118	81,655	244,463	649,738	241,616	408,122
1991	18,462	4,889	13,573	354,680	82,914	271,766	709,275	242,270	467,005
1992	19,737	5,027	14,710	363,500	81,322	282,178	730,678	236,162	494,516
1993	20,157	4,858	15,299	352,375	82,717	269,658	715,826	234,257	481,569
1994	21,397	5,231	16,166	352,265	85,643	266,622	721,185	242,439	478,746
1995	21,619	5,465	16,154	343,402	87,498	255,904	715,020	242,838	472,182
1996	21,039	5,359	15,680	321,387	87,748	233,639	691,226	241,149	450,077
1997	20,262	5,403	14,859	319,594	91,346	228,248	668,344	241,943	426,401
1998	19,094	5,443	13,651	299,346	91,274	208,072	634,790	243,193	391,597
1999	18,526	5,617	12,909	285,818	92,157	193,661	614,233	245,364	368,869
2000	19,402	5,751	13,651	295,309	94,405	200,904	634,501	246,163	388,338
2001	17,149	5,704	11,445	255,942	93,396	162,546	554,895	241,521	313,374
2002	15,509	5,730	9,779	224,929	94,578	130,351	492,111	245,317	246,794
2003	15,573	5,811	9,762	223,941	94,351	129,590	490,543	244,506	246,037
2004	14,925	5,905	9,020	215,411	95,021	120,390	472,761	244,217	228,544
2005	13,863	5,742	8,121	195,969	95,274	100,695	435,031	243,883	191,148
2006	14,390	5,909	8,481	200,984	94,913	106,071	448,153	242,266	205,887
2007	15,705	5,949	9,756	219,395	96,336	123,059	493,189	244,874	248,315
2008	14,856	6,105	8,751	207,444	97,063	110,381	465,892	246,113	219,779
2009	13,915	5,950	7,965	196,532	97,592	98,940	444,849	246,942	197,907
2010	14,315	6,311	8,004	206,718	101,146	105,572	470,171	255,403	214,768

- 대도시의 자연적 인구변화는 대전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의 경우, 2004년 이후 사망자수가 자연적 인구증가분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임
 - 대전시, 대도시 및 전국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출생자수/사망자수)을 도출하여 보면, 대전시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은 1993년부터 대도시 및 전국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대전시 자연적 인구증가율은 2.27%로서 대도시의 2.04% 및 전국의 1.8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전시 자연적 인구변화)



<그림 2-3> 대전시 자연적 인구 및 증가율 변화

2. 연령대별 인구 변화

- 자연적 인구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연령대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음
 - 우선 자연적 인구증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대 인구의 경우, 1990년 209,939명에서 2000년 253,180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0년의 경우 230,06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도 1990년 20.01%에서, 2000년 18.54%, 2010년 15.44%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30대 인구의 경우도 1990년 184,593명(전체인구대비 17.60%), 2005년 253,241명(17.60%) 그리고 2010년 244,345명(16.40%)으로 20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10대 미만의 인구도 2000년 205,514명(전체인구 대비 15.05%)에서 2005년 179,583명(12.48%) 그리고 2010년 151,717명(10.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80대 이상의 고령인구는 1990년 5,561명(전체인구대비 0.53%), 2000년 10,726명(0.79%) 그리고 2010년 23,462명(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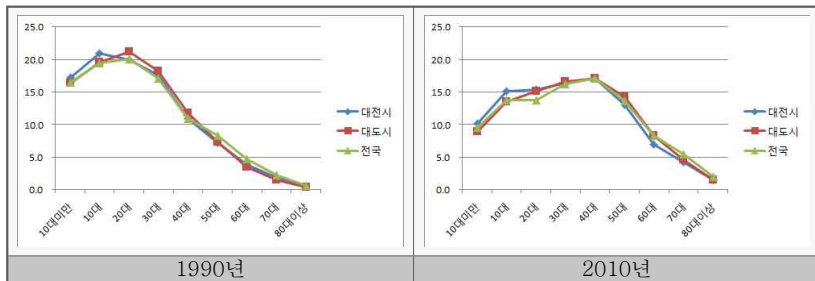
<표 2-4> 대전시 연령대별 인구변화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명)	점유비율(%)	인구(명)	점유비율(%)	인구(명)	점유비율(%)	인구(명)	점유비율(%)	인구(명)	점유비율(%)
계	1,049,113	100.00	1,270,856	100.00	1,365,686	100.00	1,438,551	100.00	1,490,158	100.00
10대미만	180,639	17.22	198,168	15.59	205,514	15.05	179,583	12.48	151,717	10.18
10대	219,446	20.92	233,933	18.41	220,192	16.12	218,668	15.20	225,146	15.11
20대	209,939	20.01	252,922	19.90	253,180	18.54	247,309	17.19	230,068	15.44
30대	184,593	17.60	243,827	19.19	247,857	18.15	253,241	17.60	244,345	16.40
40대	113,980	10.86	157,668	12.41	210,496	15.41	246,922	17.16	255,612	17.15
50대	75,587	7.20	94,368	7.43	113,148	8.29	145,246	10.10	194,050	13.02
60대	40,200	3.83	55,071	4.33	70,765	5.18	85,520	5.94	103,309	6.93
70대	19,168	1.83	26,593	2.09	33,808	2.48	46,514	3.23	62,449	4.19
80대이상	5,561	0.53	8,306	0.65	10,726	0.79	15,548	1.08	23,462	1.57

- 대전시 연령별 인구구조를 대도시 및 전국과 비교하면 <2-5>와 같음
 - 연령구조상 가장 어린 10대 미만의 구성비율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 대도시나 전국에 비해 어린이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비율은 2010년 기준 전국이나 대도시에 비해 높으나 30대 비율은 2010년 기준 전국보다는 높되 대도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80대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2010년 기준 전국보다 낮고 대도시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2-5> 대전시 연령대별 인구 점유비율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대전시	대도시	전국	대전시	대도시	전국	대전시	대도시	전국	대전시	대도시	전국	대전시	대도시	전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대미만	17.2	16.3	16.5	15.6	14.1	14.6	15.0	13.5	14.3	12.5	11.0	11.8	10.2	8.9	9.6
10대	20.9	19.6	19.5	18.4	17.3	17.0	16.1	14.9	14.7	15.2	13.8	13.9	15.1	13.5	13.8
20대	20.0	21.3	20.1	19.9	20.6	18.9	18.5	19.0	17.3	17.2	17.3	15.6	15.4	15.1	13.7
30대	17.6	18.2	17.1	19.2	19.0	18.8	18.1	18.0	18.0	17.6	17.6	17.5	16.4	16.7	16.2
40대	10.9	11.8	10.9	12.4	13.4	12.4	15.4	15.9	15.1	17.2	17.4	17.1	17.2	17.1	17.1
50대	7.2	7.3	8.4	7.4	8.6	8.9	8.3	9.7	9.4	10.1	11.5	10.9	13.0	14.3	13.7
60대	3.8	3.5	4.7	4.3	4.5	5.7	5.2	5.7	6.9	5.9	6.9	7.6	6.9	8.3	8.3
70대	1.8	1.6	2.2	2.1	2.0	2.7	2.5	2.5	3.3	3.2	3.3	4.3	4.2	4.5	5.5
80대이상	0.5	0.4	0.7	0.7	0.6	0.8	0.8	0.8	1.0	1.1	1.1	1.4	1.6	1.6	2.0



<그림 2-4> 연령대별 점유비율

제3절 사회적 인구변화

1. 전출입 인구 변화

- 1990년 이후 대전시의 전입·전출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음
 - 전입인구의 경우 1990년 102,219명에서 2000년 100,713명 그리고 2010년 86,47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출인구의 경우 1990년 68,756명에서 2005년 95,056명 그리고 2010년의 경우 87,515명으로 증가후 감소하는 변화를 보임
- 이와 같은 전입과 전출인구의 변화에 따라, 1990년 순인구 증가(전입인구-전출인구)는 33,463명으로 나타났고, 1995년의 경우는 17,750명 그리고 2000년은 8,576명, 2005년의 경우 3,210명으로 지속적인 순인구 증가의 감소를 보임
 - 최근인 2010년의 경우 1,045명의 순인구 감소를 나타냄
 - 즉 2010년에 접어들어서는 대전시로의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사회적 인구의 감소를 나타냄
- 결국 인구규모가 도시의 역량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때, 대전시 차원에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표 2-6> 대전시 전출입인구 변화

구분	전입인구		전출인구		순이동 인구	
	인구(명)	연평균 증가율(%)	인구(명)	연평균 증가율(%)	인구(명)	연평균 증가율(%)
1990	102,219	-	68,756	-	33,463	-
1995	98,432	-0.74	80,682	3.47	17,750	-9.39
2000	100,713	0.46	92,137	2.84	8,576	-10.34
2005	98,266	-0.49	95,056	0.63	3,210	-12.51
2010	86,470	-2.40	87,515	-1.59	-1,045	-26.51

2. 대전시 인구의 지역별 전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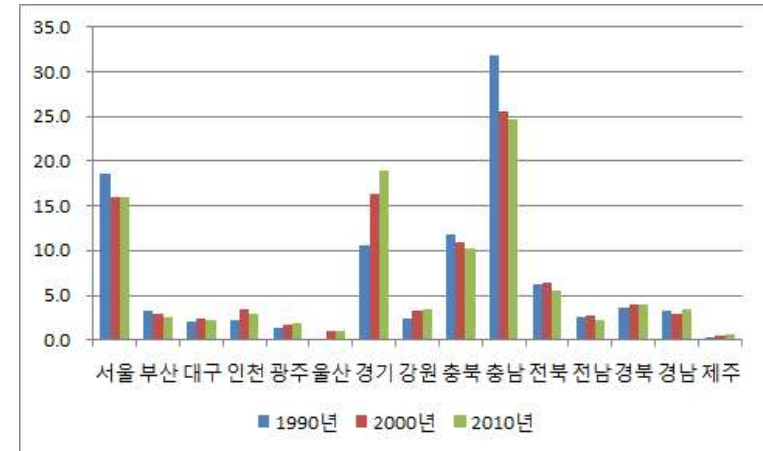
1) 전입인구

- 1990년 이후 대전시로의 전입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시와 인접한 충청남도로부터 전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에서의 전입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0년의 경우, 충청남도에서의 전입비율이 3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전입비율이 18.6%, 충청북도로부터 11.8%, 경기도로부터 10.5%의 전입비율을 보임
 - 2000년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 전입비율이 25.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기도로부터 전입비율이 16.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서울시로 16.0%, 충청북도로부터 전입비율은 10.9%임
 - 2010년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 전입비율이 여전히 높은 24.7%이며, 다음은 경기도로부터 전입비율이 18.9%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 전입비율은 16.0%, 충청북도로부터 전입비율은 10.2%임

<표 2-7> 대전시 전입인구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서울	19,028	18.6	18,989	19.3	16,154	16.0	14,366	14.6	13,819	16.0
부산	3,308	3.2	3,068	3.1	3,012	3.0	2,391	2.4	2,266	2.6
대구	2,169	2.1	2,502	2.5	2,378	2.4	2,528	2.6	1,956	2.3
인천	2,334	2.3	3,370	3.4	3,515	3.5	3,088	3.1	2,589	3.0
광주	1,286	1.3	1,539	1.6	1,640	1.6	1,817	1.8	1,633	1.9
울산	-	0.0	-	0.0	952	0.9	846	0.9	929	1.1
경기	10,766	10.5	14,881	15.1	16,514	16.4	16,201	16.5	16,368	18.9
강원	2,493	2.4	2,245	2.3	3,329	3.3	3,047	3.1	2,976	3.4
충북	12,026	11.8	10,399	10.6	10,937	10.9	10,349	10.5	8,853	10.2
충남	32,617	31.9	25,953	26.4	25,750	25.6	27,386	27.9	21,341	24.7
전북	6,373	6.2	5,849	5.9	6,427	6.4	6,372	6.5	4,814	5.6
전남	2,614	2.6	2,028	2.1	2,785	2.8	2,357	2.4	1,977	2.3
경북	3,616	3.5	3,227	3.3	3,949	3.9	4,081	4.2	3,474	4.0
경남	3,348	3.3	4,001	4.1	2,849	2.8	2,931	3.0	2,953	3.4
제주	241	0.2	381	0.4	522	0.5	506	0.5	522	0.6
합계	102,219	100.0	98,432	100.0	100,713	100.0	98,266	100.0	86,470	100.0

주1 : 2010년도 이동인구수는 각 월별 합계임
 주2 : 내부이동을 제외한 전입인구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2-5> 대전시 전입인구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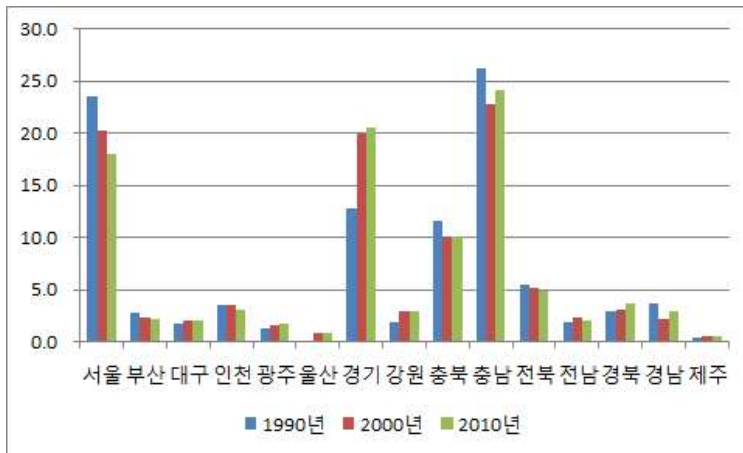
2) 전출인구

- 1990년~2010년간 대전시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의 전출인구를 살펴보면 <표 3- >와 같음
 -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전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전입과 유사하게 충청남도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는 전출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인구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로서 전체 전출인구의 26.2%를 차지하며, 다음은 서울시로 23.5%, 경기도가 12.8% 그리고 충청북도가 11.6%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출인구비율을 나타낸 지역임
 - 2000년의 경우도 충청남도로의 전출인구비율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서울시는 20.3%, 경기도는 19.9%, 충청북도는 10.2%로 서울시와 경기도로의 전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2010년의 경우도 충청남도로의 전출비율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다음은 경기도로의 전출비율이 20.6%로 서울시의 18.0%, 충청북도로의 전출 비율 10.1%에 비해 높은 증가를 나타냄

<표 2-8> 대전시 전출인구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서울	16,179	23.5	14,575	18.1	18,698	20.3	16,639	17.5	15,793	18.0
부산	1,945	2.8	2,119	2.6	2,227	2.4	2,042	2.1	1,976	2.3
대구	1,229	1.8	2,188	2.7	1,944	2.1	1,940	2.0	1,757	2.0
인천	2,456	3.6	2,577	3.2	3,273	3.6	2,946	3.1	2,762	3.2
광주	935	1.4	1,307	1.6	1,461	1.6	1,477	1.6	1,512	1.7
울산	-	0.0	-	0.0	765	0.8	715	0.8	745	0.9
경기	8,826	12.8	12,720	15.8	18,360	19.9	19,258	20.3	18,022	20.6
강원	1,268	1.8	1,711	2.1	2,700	2.9	2,454	2.6	2,603	3.0
충북	7,952	11.6	8,558	10.6	9,361	10.2	8,860	9.3	8,847	10.1
충남	18,041	26.2	23,668	29.3	21,068	22.9	25,723	27.1	21,192	24.2
전북	3,788	5.5	4,220	5.2	4,776	5.2	4,768	5.0	4,300	4.9
전남	1,294	1.9	1,549	1.9	2,163	2.3	1,952	2.1	1,815	2.1
경북	1,986	2.9	2,601	3.2	2,869	3.1	3,198	3.4	3,190	3.6
경남	2,582	3.8	2,552	3.2	2,008	2.2	2,572	2.7	2,549	2.9
제주	275	0.4	337	0.4	464	0.5	512	0.5	452	0.5
합계	68,756	100.0	80,682	100.0	92,137	100.0	95,056	100.0	87,515	100.0



<그림 2-6> 대전시 전출인구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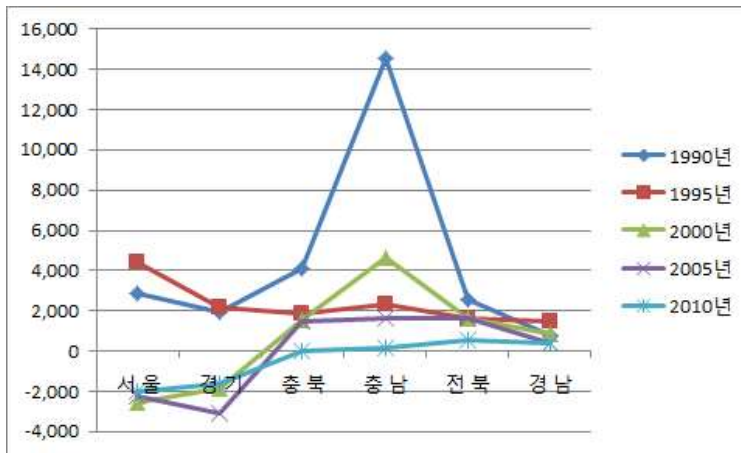
3) 순이동 인구

- 1990년 이후 20여년간 대전시 순이동 인구를 도출하면 <표 2-9>와 같음
- 대전시 순이동 인구는 지난 1990년에서 2005년까지는 순이동 인구에서 증가를 나타냈으나, 2010년의 경우 순이동 인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지역별 순이동 인구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로의 인구유출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순이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청남도과 충청북도에서의 인구유입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이들 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급속히 감소함
- 한편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서의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대전시 순이동 인구

(단위 : 명)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서울	2,849	4,414	-2,544	-2,273	-1,974
부산	1,363	949	785	349	290
대구	940	314	434	588	199
인천	-122	793	242	142	-173
광주	351	232	179	340	121
울산	-	-	187	131	184
경기	1,940	2,161	-1,846	-3,057	-1,654
강원	1,225	534	629	593	373
충북	4,074	1,841	1,576	1,489	6
충남	14,576	2,285	4,682	1,663	149
전북	2,585	1,629	1,651	1,604	514
전남	1,320	479	622	405	162
경북	1,630	626	1,080	883	284
경남	766	1,449	841	359	404
제주	-34	44	58	-6	70
전국	33,463	17,750	8,576	3,210	-1,045



<그림 2-7> 대전시 순인구이동 변화 추이 : 주요 도시 기준

제4절 인재 유출-유입구조 분석

1. 지역인재 유출-유입구조 분석 방법

1) 지역인재의 정의

- 지역인재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중에 고도의 숙련이나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인적자원으로 정의 할 수 있음
 - 지역인재는 지역에서의 산업활동을 통해서도 형성되며, 동시에 교육활동을 통해서도 형성됨
 - 지역인재에는 지역의 잠재적 인적자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입이 예상되는 인력,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후 유입이 예상되는 인력 등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역인재의 정의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 높은 수준의 학력과 숙련을 갖춘 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재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신규경제활동인구와 경력직은 학력불문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분석함

2) 자료와 분석방법

- 이하에서는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다양한 경로 중에 2가지 경로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첫째는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가 신규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재유출의 경로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는 대학졸업자의 신규 취업 현황 자료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전문대학, 대학졸업자가 자신의 대학 소재지와 다른 지역으로 취업할 경우 이를 지역간 노동이동을 파

악함

- 둘째는 경력직 노동력이 이직이나 전직을 통해 자신의 지금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발생하는 인재유출 경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경력직 노동자가 전직이나 이직을 위해 기존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중단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갱신한 경우 직장의 지역이 변경될 것이므로, 이것을 지역 간 노동 이동으로 파악코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상기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입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 이동 지역은 대전에서 충청지역, 대전에서 수도권, 대전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을 살펴봄
- 충청권을 동일한 노동시장으로 가정할 경우 충청지역에서 수도권, 충청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을 조사함

2. 지역인재 현황

1) 대전시의 대학 현황

- 대전지역에는 2011년 현재 4년제 대학 11개(산업대학 1개 포함)와 2년제 대학 5개(기술대학 포함) 등 모두 16개 대학이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의 입학생수는 총 31,174명(대학원 1,597명, 4년제 19,546명, 2년제 10,031명)이고, 총재학생수는 112,607명(대학원 19,382명, 4년제 72,836명, 2년제 20,389명), 교원(비전임 포함)은 모두 3,653명으로 나타남

<표 2-10> 대전지역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현황

대학	학생수			교원수	2004년 입학자수
	학부	대학원	계		
4년제 (11개)	72,836	19,382	92,218	3,145	21,143
2년제 (5개)	20,389		20,389	508	10,031
계	93,225	19,382	112,607	3,653	0

(자료: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대전시의 16개 대학에서 2011년도에 배출한 24,841명의 졸업생을 학위종류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2004년부터는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가 대학원 입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석박사의 배출인원은 향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2-11> 2011년 대전지역 대학의 졸업생수 현황

대학	졸업생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계
4년제		13,820	2,965	453	17,238
2년제	7,603				7,603
계	7,603	13,820	2,965	453	24,841

(자료: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대전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사, 석사, 박사의 전공별 구성 비율(2010년도 기준)과 이들을 배출시키는 대학 전임교원의 전공별 구성 비율(2010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2> 대전지역 대학 인력의 전공별 구성

전공계열	공학계열	교육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계
전문인력구분	인원	8,875	1,075	7,491	1,217	335		18,993
학사	비율(%)	48.9	24.8	16.1	8.0	2.2		100.0
학사	인원	7,484	3,800	2,470	1,217	335		15,306
석사	비율(%)	48.9	24.8	16.1	8.0	2.2		100.0
박사	인원	1,681	1,057	612	144	193		3,687
교원	비율(%)	45.6	28.7	16.6	3.9	5.2		100.0
박사	인원	571	52	15	0	91		729
교원	비율(%)	78.3	7.1	2.1	0.0	12.5		100.0
교원	인원	1,357	616	241	163	381		2,758
교원	비율(%)	49.2	22.3	8.8	5.9	13.8		100.0

(자료: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지역 인력의 이공계 비중은 50%정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2010년 전국의 대졸자중 이공계의 비율이 39.8%임을 감안할 때, 대전지역의 인력 구조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공계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2) 대전시의 인적 자원 수요 현황

-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라 할 수 있는 대전지역의 산업체의 현황과 전망으로서 2005년 현재 대전시의 산업별 구성비율과 총 산업체 인력수, 그리고 2010년도는 다음과 같음

<표 2-13> 대전시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단위 : 천명)

산업구조구분	1차산업 (농림어업)	2차산업 (광공업)	3차산업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총사자수
2005년	21(3.6%)	80(13.6%)	487(82.8%)	588(100)
2010년	22(2.8%)	139(17.6%)	629(79.6%)	790(100)

(자료: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대전광역시)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시의 산업인력은 3차산업 인력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이거나, 현재 그 동안 침체되었던 벤처기업이 최근 다시 활성화 되고 있고, 대전시가 새로이 지정한 4대 전략산업과 4대 신성장산업, 그리고 각종 지역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방침에 따라 향후 2차 산업의 비중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대학의 인력 배출도 이러한 수요처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의 수요처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연구개발 인력이라 할 수 있는데, 대전의 연구 개발인력 현황과 연구개발인력 및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14> 대전시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계
2010년 연구개발인수	7,863(30.3%)	10,344(39.9%)	7,722(29.8%)	25,92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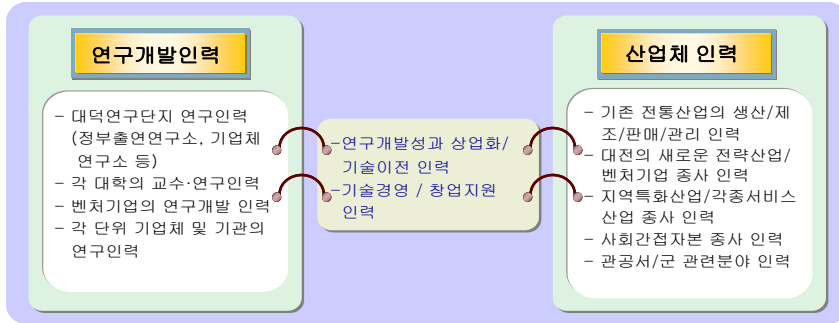
(자료 :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대전광역시)

<표 2-15> 대덕연구단지의 기관과 종사자수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정부투자 연구소	대학	기업체 연구소	벤처기업	계
기관수	9	17	8	4	29	130	204
종사자수	455	6,314	2,311	2,401	3,778	2,212	17,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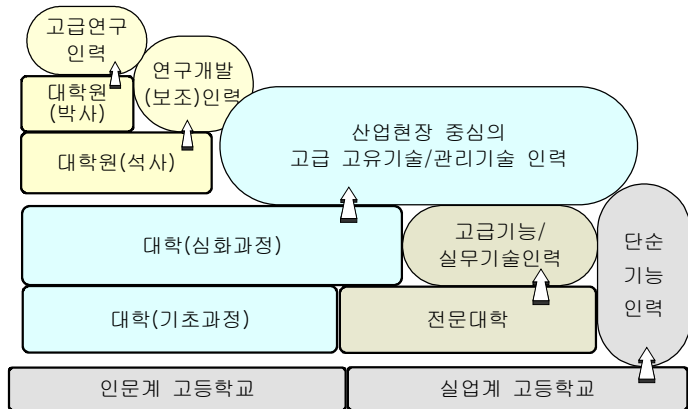
(자료 :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대전광역시)

- 따라서 대전지역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구인력은 대덕연구단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등에 적절히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R&D 특구의 출범에 따라 그 수요인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종류를 구조화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8> 대전시의 인력 수요 구조

- 대전 지역의 각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인적자원을 계층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9> 대학 졸업 인력의 계층 분류

3. 전문대 및 대졸, 대학원졸 신규 취업자,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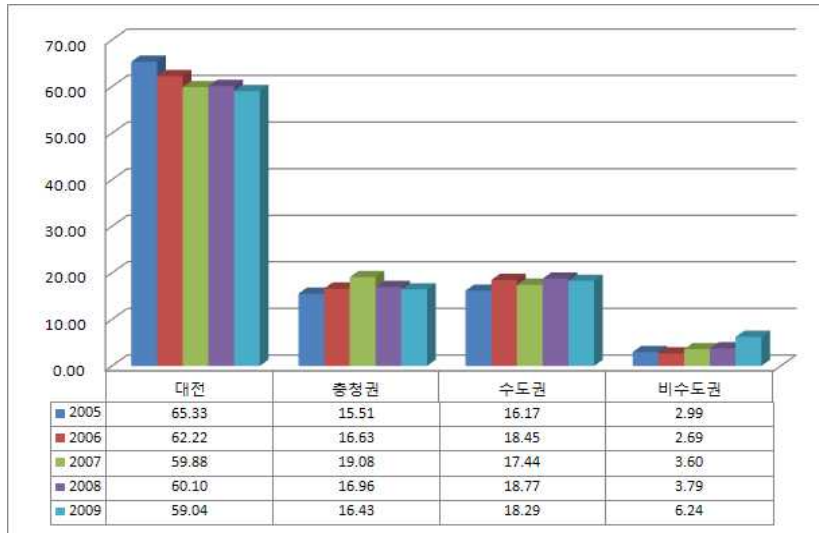
1) 지역노동시장 유출-유입 구조 분석 방법

- 지역노동시장의 대학졸업자의 유입-유출구조(inflow-outflow structure)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의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졸업자의 합) 신규 취업자의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파악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졸업자가 신규로 취직한 근무처의 근무지 주소와 출신대학 소재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를 지역인재의 유출입 대상으로 설정
 - 예를 들어 대전지역 소재 대학졸업자의 신규 취업 근무지의 주소가 서울이면 대구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
- 경력직 노동력의 유입-유출구조는 경력직 노동자가 이직이나 전직을 통해 자신의 지금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발생하는 인재유출 경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경력직 노동자가 전직이나 이직을 위해 기존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중단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갱신한 경우 직장의 지역이 변경될 것이므로, 이것을 지역 간 노동이동으로 파악함

2) 대전지역 전문대학 졸업자의 신규 취업에 의한 유출-유입구조

(1) 유출구조

- 우선 대전지역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을 통한 유출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졸업자의 59%가 대전에 취업하였고, 11.8%가 충남에 취업함
 - 수도권인 서울에는 11.4%, 경기지역으로는 5.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41%가 취업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전지역 전문대 졸업생 7,097명 중에 59%인 4,190명이 대전에 머물고, 나머지 41%인 2,907명(해외포함)이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0> 대전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신규취업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대전에서 졸업하여 대전지역에 취업한 전문대 졸업생은 2005년에는 65%, 2006년에는 62%, 2008년 60%, 2009년 5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수도권으로의 이동, 충남과 충북의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은 미미하지만 2009년 들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반적으로 대전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신규 취업을 통해 대전지역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에 수도권을 포함한 타지역으로 점점 더 유출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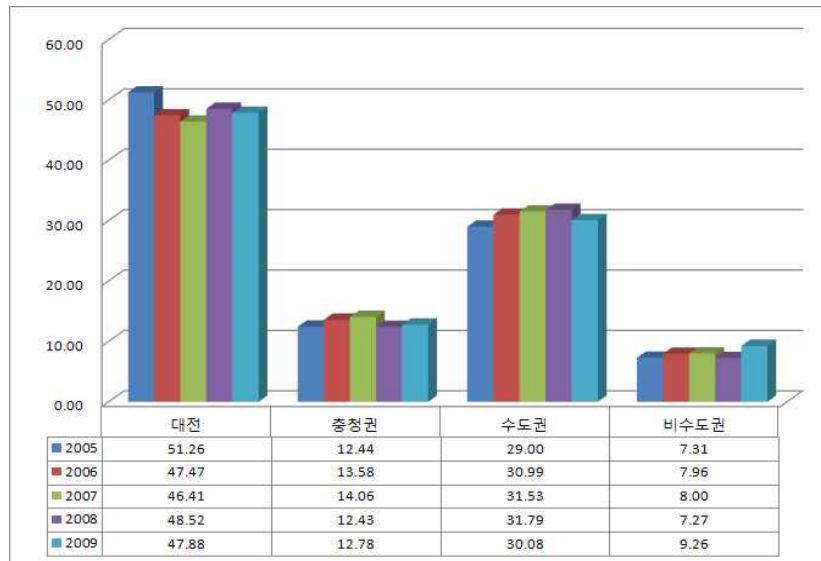
(2) 유입구조

- 다음으로 2009년 대전지역 노동시장으로의 전문대 졸업자의 유입구조를 살펴보면, 충남지역 전문대를 졸업한 졸업자의 3.7%가 대전지역에 취업하였고, 다음으로는 전북이 2.1%, 경북 1.7%, 전남 1.6%의 순으로 대전지역에 취업함
 - 결과적으로 2009년 대전지역으로 유입된 전문대 취업자는 총 1,119명으로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전문대 졸업 취업인구 5,309명의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유입보다는 대전과 인접한 충남, 전북, 경북지역에서의 유입비중이 높으며, 반면 충북지역에서의 유입비중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대전지역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신규 취업에 의한 유출-유입 구조

(1) 유출구조

- 2009년도 대전지역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생의 47.88%가 대전 지역에서 취업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한 비율이 30.1%에 달함
 - 충청권으로의 취업은 12.3%, 비수도권으로의 취업은 9.3%로 대전 이외 유출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대전지역에 취업한 대전지역 대학 졸업생은 2005년에는 51.26%, 2006년 47.47%, 2007년 46.41%, 2008년 48.52%로 시기적으로 부침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
 - 충청권으로의 유출은 2005년 12.4%, 2007년 14.1%, 2009년 12.8% 등으로 13%대를 줄곧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남



<그림 2-11> 대전지역 4년제 졸업생의 신규취업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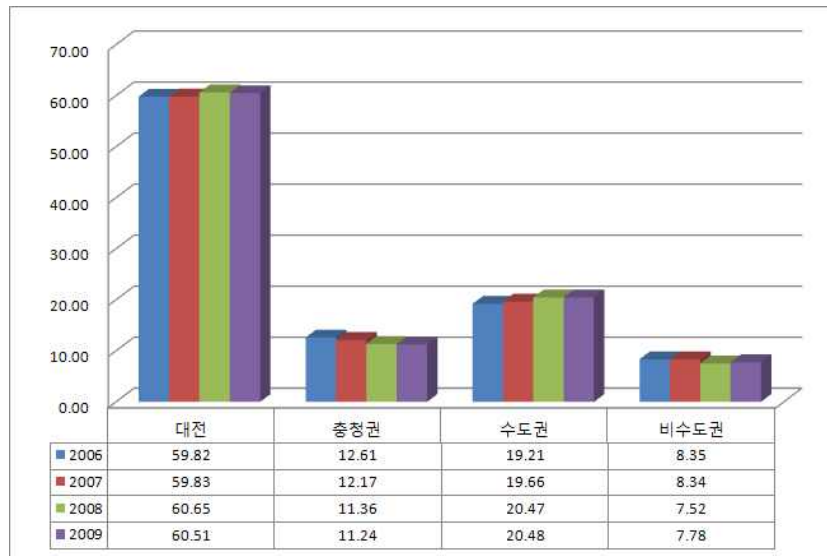
(2) 유입구조

- 다음으로 2009년 대전지역 노동시장으로의 4년제대학 졸업자의 유입구조를 살펴보면, 충남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자의 5.5%가 대전지역에 취업하였고, 다음으로는 충북이 2.8%, 전북 1.9%, 광주 1.9%의 순으로 대전지역에 취업함
 - 결과적으로 2009년 대전지역으로 유입된 4년제 대학졸업 취업자는 총 2,152명으로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인구 5,956명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유입보다는 대전과 인접한 충남, 충북, 호남지역에서의 유입비중이 높으며, 반면 수도권지역에서의 유입비중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자의 신규 취업에 의한 유출-유입 구조

(1) 유출구조

- 2009년도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생의 60.5%가 대전지역에서 취업하였으며, 서울 지역으로 취업이 9.3%, 경기 지역이 9.9%, 충남지역이 7.7%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20.5%, 충청권(충북, 충남)11.24%, 비수도권(해외 포함)으로의 취업은 7.8%로 대전 이외 유출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2>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생의 신규취업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 %)

-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대전지역에 취업한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생은 2006년에는 59.82%, 2007년 59.83%, 2008년 60.65%, 2009년 60.51%로 전반적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충청권으로의 유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남
- 대학원졸업자의 신규취업 경향 역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대전에서도 점차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2) 유입구조

- 다음으로 2009년 대전지역 노동시장으로의 대학원 졸업자의 유입구조를 살펴보면, 충남지역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자의 12.5%가 대전지역에 취업하였고, 다음으로는 충북이 10.78%, 울산 7.07%, 전북 5.01%의 순으로 대전지역에 취업함
- 결과적으로 2009년 대전지역으로 유입된 타지역 소재 대학원졸업 취업자는 총 927명으로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대학원 졸업 취업인구 1,713명의 5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유입보다는 대전과 인접한 충남, 충북지역에서의 유입비중이 높으며, 울산에서의 취업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인 반면 수도권지역에서의 유입비중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지역별 대학원 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계
서울	2009	6821	82	47	223	37	366	28	2510	154	129	193	52	53	106	129	22	108	11060
부산	2009	188	1118	18	18	5	53	74	104	5	14	11	2	15	55	352	3	16	2051
대구	2009	89	23	533	4	3	26	7	65	4	12	4	4	3	173	43	1	3	997
인천	2009	128	2	1	167	4	20	0	114	2	6	15	2	4	12	19	2	7	505
광주	2009	86	11	3	13	590	43	1	74	6	5	13	28	209	7	10	1	5	1105
대전	2006	123	11	10	7	4	716	4	100	6	65	86	11	6	16	19	1	12	1197
	2007	108	12	15	8	3	703	5	115	2	46	97	14	9	12	8	1	17	1175
	2008	133	4	11	8	3	726	3	104	2	35	101	20	7	15	17	1	7	1197
	2009	121	7	6	16	2	786	1	129	9	46	100	18	5	22	24	1	6	1299
울산	2009	123	5	3	6	0	20	78	24	5	0	2	0	1	3	9	1	3	283
경기	2009	713	11	4	52	4	65	10	887	14	24	109	7	10	22	23	7	12	1974
강원	2009	174	3	3	6	1	8	0	95	279	8	8	1	1	7	3	1	1	599
충북	2009	153	21	20	16	9	97	7	146	30	292	49	9	10	15	25	1	0	900
충남	2009	166	0	3	22	3	91	1	117	5	31	258	10	5	9	5	1	1	728
전북	2009	139	1	2	17	22	56	1	121	2	10	33	643	39	9	14	3	5	1117
전남	2009	25	6	6	7	57	6	4	30	1	3	6	14	198	2	14	3	2	384
경북	2009	238	45	324	10	2	36	23	105	10	14	14	1	4	434	35	5	16	1316
경남	2009	83	99	6	7	1	34	14	58	0	4	10	5	6	14	559	4	11	915
제주	2009	5	0	0	0	0	6	0	5	0	1	1	0	0	1	3	101	0	123
총계	2009	9252	1434	979	584	740	1713	249	4584	526	599	826	796	563	891	1267	157	196	25356

- 39 -

<표 2-21> 지역별 대학원 졸업생 신규 취업자의 근무지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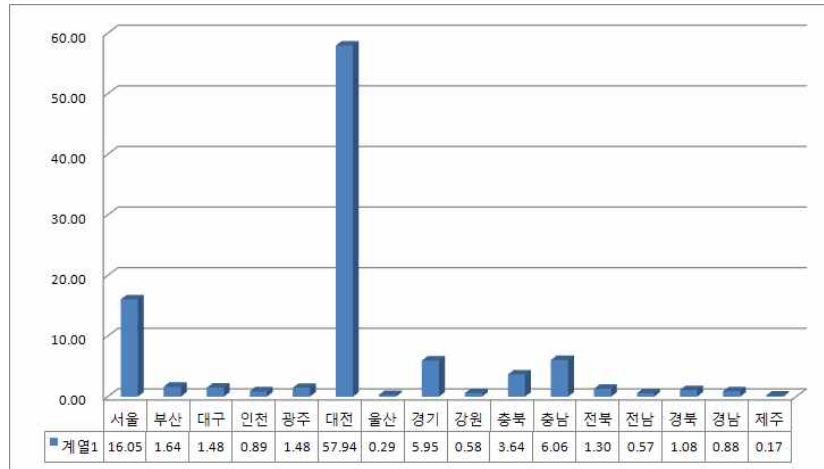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계
서울	2009	61.67	0.74	0.42	2.02	0.33	3.31	0.25	22.69	1.39	1.17	1.75	0.47	0.48	0.96	1.17	0.20	0.98	100.00
부산	2009	9.17	54.51	0.88	0.88	0.24	2.58	3.61	5.07	0.24	0.68	0.54	0.10	0.73	2.68	17.16	0.15	0.78	100.00
대구	2009	8.93	2.31	53.46	0.40	0.30	2.61	0.70	6.52	0.40	1.20	0.40	0.40	0.30	17.35	4.31	0.10	0.30	100.00
인천	2009	25.35	0.40	0.20	33.07	0.79	3.96	0.00	22.57	0.40	1.19	2.97	0.40	0.79	2.38	3.76	0.40	1.39	100.00
광주	2009	7.78	1.00	0.27	1.18	53.39	3.89	0.09	6.70	0.54	0.45	1.18	2.53	18.91	0.63	0.90	0.09	0.45	100.00
대전	2006	10.28	0.92	0.84	0.58	0.33	59.82	0.33	8.35	0.50	5.43	7.18	0.92	0.50	1.34	1.59	0.08	1.00	100.00
	2007	9.19	1.02	1.28	0.68	0.26	59.83	0.43	9.79	0.17	3.91	8.26	1.19	0.77	1.02	0.68	0.09	1.45	100.00
	2008	11.11	0.33	0.92	0.67	0.25	60.65	0.25	8.69	0.17	2.92	8.44	1.67	0.58	1.25	1.42	0.08	0.58	100.00
	2009	9.31	0.54	0.46	1.23	0.15	60.51	0.08	9.93	0.69	3.54	7.70	1.39	0.38	1.69	1.85	0.08	0.46	100.00
울산	2009	43.46	1.77	1.06	2.12	0.00	7.07	27.56	8.48	1.77	0.00	0.71	0.00	0.35	1.06	3.18	0.35	1.06	100.00
경기	2009	36.12	0.56	0.20	2.63	0.20	3.29	0.51	44.93	0.71	1.22	5.52	0.35	0.51	1.11	1.17	0.35	0.61	100.00
강원	2009	29.05	0.50	0.50	1.00	0.17	1.34	0.00	15.86	46.58	1.34	1.34	0.17	0.17	1.17	0.50	0.17	0.17	100.00
충북	2009	17.00	2.33	2.22	1.78	1.00	10.78	0.78	16.22	3.33	32.44	5.44	1.00	1.11	1.67	2.78	0.11	0.00	100.00
충남	2009	22.80	0.00	0.41	3.02	0.41	12.50	0.14	16.07	0.69	4.26	35.44	1.37	0.69	1.24	0.69	0.14	0.14	100.00
전북	2009	12.44	0.09	0.18	1.52	1.97	5.01	0.09	10.83	0.18	0.90	2.95	57.56	3.49	0.81	1.25	0.27	0.45	100.00
전남	2009	6.51	1.56	1.56	1.82	14.84	1.56	1.04	7.81	0.26	0.78	1.56	3.65	51.56	0.52	3.65	0.78	0.52	100.00
경북	2009	18.09	3.42	24.62	0.76	0.15	2.74	1.75	7.98	0.76	1.06	1.06	0.08	0.30	32.98	2.66	0.38	1.22	100.00
경남	2009	9.07	10.82	0.66	0.77	0.11	3.72	1.53	6.34	0.00	0.44	1.09	0.55	0.66	1.53	61.09	0.44	1.20	100.00
제주	2009	4.07	0.00	0.00	0.00	0.00	4.88	0.00	4.07	0.00	0.81	0.81	0.00	0.00	0.81	2.44	82.11	0.00	100.00
총계	2009	36.49	5.66	3.86	2.30	2.92	6.76	0.98	18.08	2.07	2.36	3.26	3.14	2.22	3.51	5.00	0.62	0.77	100.00

- 40 -

5) 경력직 노동인력의 재취업에 의한 유출-유입 구조

(1) 유출구조

- 2010년도 대전지역에서 재취업을 한 경력직 노동인력은 대전지역 해당자 전체 중 57.94%에 이르며, 다음으로는 서울 16.05%, 충남 6.05%, 경기 5.95%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23.34%, 충청권(충북, 충남) 9.70%, 비수도권(해외 포함)으로의 취업은 9.02%로 대전 이외 유출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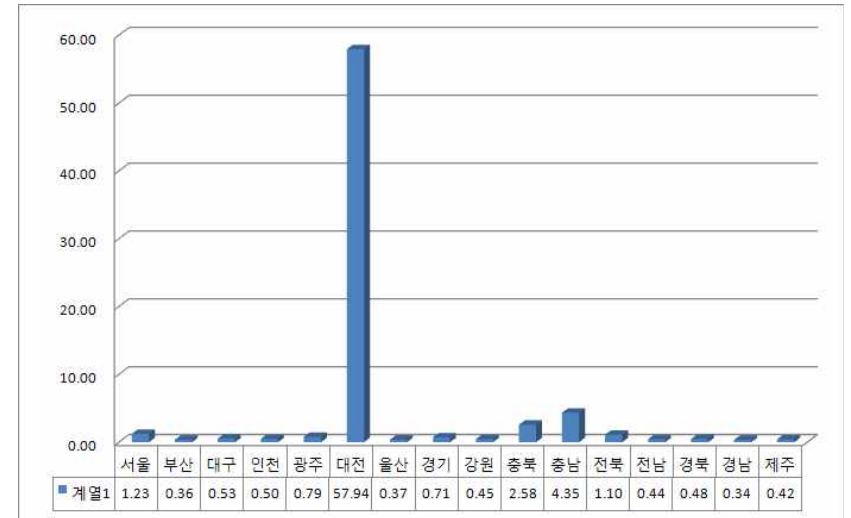
<그림 2-13> 대전지역 경력자의 근무지(유출) 추이 (구성비: %)

(2) 유입구조

- 다음으로 2010년 대전지역 노동시장으로의 경력직 노동인력의 유입구조를 살펴보면, 충남지역 경력자의 4.35%가 대전지역에 재취업하였고, 다음으로는 충북이 2.58%, 서울 1.23%의 순으로 대전지역에 재취업함
- 결과적으로 2010년 대전지역으로 유입된 타지역 출신 재취업자는 총 43,021명

으로 대전지역 노동시장으로 재취업한 인구 108,820명의 39.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력직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지역에서의 유입보다는 대전시에서 재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서울에서 유입하는 비율이 타지역의 유입비중에 견주어 볼 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14> 대전지역 경력자의 근무지(유입) 추이 (구성비: %)

<표 22> 지역간 경력직노동력 이동현황 (2010년)

(단위 : 명)

변경전 변경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441,625	1,429,989	267,851	164,530	205,294	97,496	108,820	91,091	890,099	104,542	129,944	163,773	123,097	122,468	218,360	291,502	32,695
서울	1,393,707	1,011,541	25,213	13,489	33,315	8,461	17,121	5,674	188,810	10,746	12,680	17,067	9,183	7,634	13,722	15,558	3,482
부산	261,519	24,509	187,742	1,914	1,276	408	938	4,992	6,487	489	699	1,060	551	1,216	3,171	25,572	489
대구	162,716	13,158	2,147	115,814	609	407	868	961	4,444	343	560	763	307	266	18,801	3,113	152
인천	205,536	35,119	1,504	719	124,129	734	1,029	508	31,183	1,062	1,312	3,005	1,178	1,039	1,355	1,439	219
광주	97,305	8,870	539	278	806	67,054	766	126	4,232	216	299	726	1,734	10,594	366	515	184
대전	113,559	18,225	1,862	1,686	1,010	1,675	65,799	324	6,757	659	4,139	6,878	1,479	646	1,226	1,004	190
울산	90,834	6,447	5,515	1,042	471	155	332	62,974	2,183	259	297	574	466	516	4,030	5,463	96
경기	913,128	212,290	7,089	4,940	32,254	4,101	6,499	2,332	578,040	7,908	10,707	19,177	5,750	4,738	8,381	7,734	1,171
강원	104,369	11,048	542	403	1,155	186	474	211	7,820	77,423	1,487	910	294	322	1,073	788	232
충북	131,344	13,360	768	646	1,437	282	3,387	360	11,571	1,367	89,588	4,394	783	445	1,729	1,101	124
충남	172,488	21,056	1,496	1,029	3,407	766	7,503	897	20,035	1,160	4,470	101,513	2,571	1,364	2,809	2,182	230
전북	124,196	9,866	646	237	1,228	1,676	1,360	638	6,058	395	669	2,488	95,029	2,155	623	982	146
전남	125,355	8,798	1,584	310	1,150	10,596	551	826	5,375	363	458	1,232	2,110	88,318	1,013	2,418	252
경북	220,526	14,959	3,734	18,687	1,357	367	1,048	4,508	8,384	1,077	1,490	2,108	683	1,109	155,494	5,322	185
경남	292,255	17,129	26,961	3,181	1,439	498	1,006	5,677	7,428	774	970	1,715	874	1,873	4,379	218,016	333
제주	32,788	3,614	509	155	251	130	139	83	1,292	301	119	163	105	233	188	295	25,210

<표 2-23> 지역간 경력직노동력 이동현황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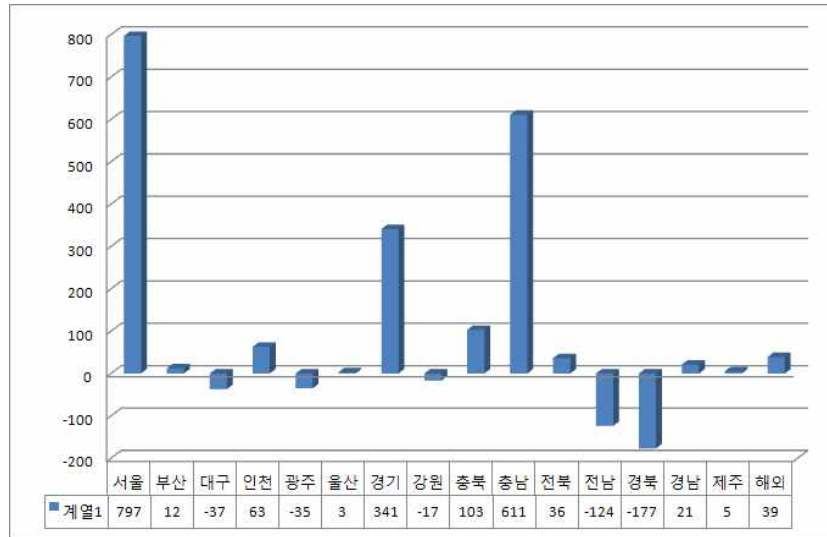
(단위 : 명)

변경전 변경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00	32.20	6.03	3.70	4.62	2.20	2.45	2.05	20.04	2.35	2.93	3.69	2.77	2.76	4.92	6.56	0.74
서울	100	72.58	1.81	0.97	2.39	0.61	1.23	0.41	13.55	0.77	0.91	1.22	0.66	0.55	0.98	1.12	0.25
부산	100	9.37	71.79	0.73	0.49	0.16	0.36	1.91	2.48	0.19	0.27	0.41	0.21	0.46	1.21	9.78	0.19
대구	100	8.09	1.32	71.18	0.37	0.25	0.53	0.59	2.73	0.21	0.34	0.47	0.19	0.16	11.55	1.91	0.09
인천	100	17.09	0.73	0.35	60.39	0.36	0.50	0.25	15.17	0.52	0.64	1.46	0.57	0.51	0.66	0.70	0.11
광주	100	9.12	0.55	0.29	0.83	68.91	0.79	0.13	4.35	0.22	0.31	0.75	1.78	10.89	0.38	0.53	0.19
대전	100	16.05	1.64	1.48	0.89	1.48	57.94	0.29	5.95	0.58	3.64	6.06	1.30	0.57	1.08	0.88	0.17
울산	100	7.10	6.07	1.15	0.52	0.17	0.37	69.33	2.40	0.29	0.33	0.63	0.51	0.57	4.44	6.01	0.11
경기	100	23.25	0.78	0.54	3.53	0.45	0.71	0.26	63.30	0.87	1.17	2.10	0.63	0.52	0.92	0.85	0.13
강원	100	10.59	0.52	0.39	1.11	0.18	0.45	0.20	7.49	74.18	1.42	0.87	0.28	0.31	1.03	0.76	0.22
충북	100	10.17	0.58	0.49	1.09	0.21	2.58	0.27	8.81	1.04	68.21	3.35	0.60	0.34	1.32	0.84	0.09
충남	100	12.21	0.87	0.60	1.98	0.44	4.35	0.52	11.62	0.67	2.59	58.85	1.49	0.79	1.63	1.27	0.13
전북	100	7.94	0.52	0.19	0.99	1.35	1.10	0.51	4.88	0.32	0.54	2.00	76.52	1.74	0.50	0.79	0.12
전남	100	7.02	1.26	0.25	0.92	8.45	0.44	0.66	4.29	0.29	0.37	0.98	1.68	70.45	0.81	1.93	0.20
경북	100	6.78	1.69	8.47	0.62	0.17	0.48	2.04	3.80	0.49	0.68	0.96	0.31	0.50	70.51	2.41	0.08
경남	100	5.86	9.23	1.09	0.49	0.17	0.34	1.94	2.54	0.26	0.33	0.59	0.30	0.64	1.50	74.60	0.11
제주	100	11.02	1.55	0.47	0.77	0.40	0.42	0.25	3.94	0.92	0.36	0.50	0.32	0.71	0.57	0.90	76.89

4. 유출-유입 구조의 특성

(1) 전문대 졸업자의 유출-유입구조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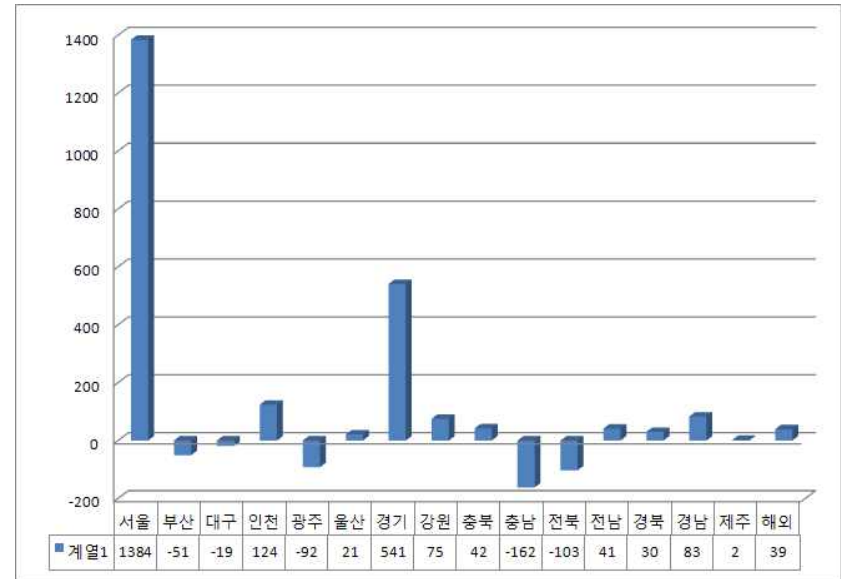
- 대전지역 전문대 졸업자의 유출구조를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단위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순유출자가 1,641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의 순유출자수가 79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충청지역 611명, 경기도 341명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으로의 유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 중 대구와 광주, 강원, 전남, 경북에서는 총 390명의 순유입이 있었음



<그림 2-15> 2009년 대전지역 전문대졸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2)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유출-유입구조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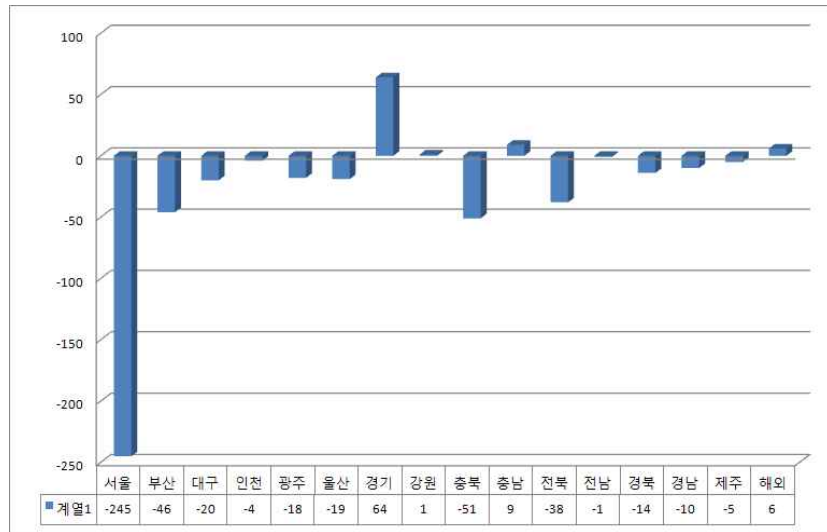
- 대전지역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유출구조를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단위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순유출자가 1,955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의 순유출자수가 1,384명으로 압도적임
- 다음은 경기도 541명, 인천 124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와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 중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에서는 총 408명의 순유입이 발생함



<그림 2-16> 2009년 대전지역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3) 대학원 졸업자의 유출-유입구조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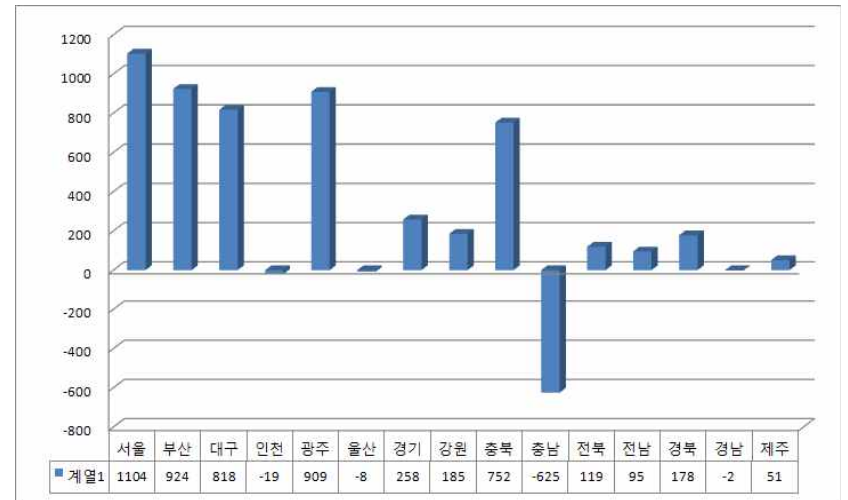
-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자의 유출구조를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단위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부터의 순유입자가 391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부터의 순유입자수가 24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하여 경기도는 64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으며, 충남 또한 9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음
 - 대학원 졸업자의 신규취업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전문대졸과 대학졸업에 비하여 순유입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전시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2-17> 2009년 대전지역 대학원졸업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4) 경력직 노동력의 유출-유입구조의 특성

-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자의 유출구조를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단위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순유출자가 4,739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의 순유출자수가 1,10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924명, 광주 909명, 대구 818명, 충북 752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음
 - 이에 비하여 충남지역과는 625명의 순유입자가 있었음
 - 경력직 노동인력의 재취업의 특성은 순유출자의 수가 보여주듯이,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대전광역시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2-18> 2010년 대전지역 경력자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제 3 장

대전시 인구이동 예측

- 제1절 세종시 건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이동 예측
- 제2절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이동 예측
- 제2절 2030세대 인재이동 예측과 유출자 특성

제3장 대전시 인구이동 예측

제1절 세종시 건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이동 예측

1. 대규모 개발과 인접지역의 인구변화

- 일반적으로 인접지역에서 대규모개발이 있게 되면,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접지역인 세종시 건설, 충남도청 이전으로 2012년 이후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인구이동은 결국 대전광역시 입장에서 인구유출, 도심공동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주시해 보아야 함
- 우선, 충남도청 이전은 2012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총 104개 기관·단체, 총 4,953명이 이전할 예정임(충청남도 내부자료(2008))
 - 2012년에는 충남도청, 교육청 등 58개 기관, 총 3,168명이 이주 예정이며, 2012년 이후 충남경찰청, 농촌공사 등 46개 기관, 총 1,785명이 해당됨
 - 이중 인구유출, 도심공동화 등 우리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충남도청(1,100명), 충남경찰청(493명), 충남교육청(449명)의 3개기관·시설로 총 2,042명의 규모로 예상됨
- 세종시 건설은 2014년까지 이루어지며, 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 등 52개 기관, 13,740명이 이전할 예정임(총리실 세종시 지원단 내부자료(2011년))
 - 2012년에는 총리실, 조세심판원 등 12개 기관, 총 4,139명이 이주 예정이며, 2013년에는 교과부, 무역위원회 등 18개 기관, 총 4,116명, 2014년에는 법제처, 한국정책방송 등 22개 기관 총 5,550명이 연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임

2. 세종시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 예측

- 충남도청 이전과 세종시 건설이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직면하여 인접지역으로서 대전광역시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변동을 단순 예측해보면 아래와 같음(대전광역시 내부자료 참조, 2012)
- 우선 세종시 건설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인원은 2012년 1,400명, 2013년 이후 3,265명 등 총 4,665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세종시로의 총 이전 대상자는 13,740명으로 이 중 총리실 설문조사 결과 대전 거주 희망비율인 13%를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가구원수 2.6명을 대입해 보면 4,665명의 유입인원이 산출됨

총이전 대상자 (A)	대전거주희망비율 (B)	가구당 가구원수 (C)	총유입 예상인구 (A×B×C)
세종시 이전대상자 전체	총리실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평균가구원수	2012년 이후 총계
13,740명	13%	2.6명	4,665명

- 충남도청 이전으로 예상되는 인구 유출인원은 2012년 1,530명, 2013년 이후 6,530명 등 총 8,0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충남도청으로의 총 이전 대상자는 8,060명으로 이 중 내포 신도시 이전 희망비율 62%를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가구원수 2.6명을 대입해 보면 8,060명의 유출인원이 산출됨

총이전 대상자 (A)	내포신도시 거주희망비율 (B)	가구당 가구원수 (C)	총유출 예상인구 (A×B×C)
충남도청 이전대상자 전체	충남도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평균가구원수	2012년 이후 총계
5,000명	62%	2.6명	8,060명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 변수를 종합하여 연차별 인구 유출입을 산출해보면, 총 3,395명의 순 인구유출이 예상됨
 - 세종시 건설시 2012년 1,400명, 2013년 1,390명, 2014년 1,875명의 연차별 이전 대상자에 대전거주 희망비율을 대입하고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면, 2012년 1,400명, 2012년 이후 3,265명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충남도청은 2012년 1,530명, 2013년 이후 6,530명의 총 유출 예상인구에 연차별 이주비율(2012년 19%, 2013년 이후 81%를 대입하면, 2012년 1,530명, 2013년 이후 6,530명의 인구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종시 건설과 충남도청 이전의 변수를 종합하여 볼 때, 연차별로 2012년 130명, 2013년 이후 3,265명의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주여건이 본격화 되는 2012년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구분	인구유입 (A)	인구유출 (B)	순 인구유출 (B-A)
총계	4,665	8,060	3,395
2012년	1,400	1,530	130
2013년 이후	3,265	6,530	3,265

- 이상의 대규모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예측은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여, 세종시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대전시로의 인구유입,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대전시로 부터의 인구유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선명하고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없음
 - 세종시의 경우 인구유입 뿐만아니라,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변수도 같이 고려하여야 하며
 - 충남도청 이전 역시, 초창기 대전에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인구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하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인구예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이동 예측을 위한 조사자료 분석과 인구이동이 활발한 20-30대 층의 정주의식 조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인구이동의 추세를 예측해보도록 함

제2절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이동 예측

1. 연구를 위한 자료

-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본격적으로 발족하게 되는 세종시로 대전시 인구유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유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11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
 - 2011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조사이며, 이 조사에는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향후 세종시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이주할 경우 언제 이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조사는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였으며, 조사자는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 방식 조사방식은 면접조사 방식으로 총 821매 설문조사가 이루어짐
-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성향은 <표 3-1>과 같음
 - 성별로는 여성이 53.0%로 남성보다 많고, 연령별로 보면, 40대 25.9%, 30대 21.2%, 50대가 21.1% 등임
 - 거주지는 서구 33.0%, 유성구 18.3%, 중구 17.4%
 - 주택소유자는 76.4%,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자 6.0%, 고등학교 졸업자 38.4%, 대학교 이상 졸업자 55.7%임
 -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은 17.9%, 200만원-400만원은 50.9% 그리고 400만원 초과는 31.2%임
 - 자산측면에서는 1억원 미만이 33.9%, 1억~2억 미만 30.9% 그리고 2억 이상은 35.2%임

- 직업으로는 자영업이 23.5%, 일반회사원이 21.4%, 전업주부가 15.5%, 전문직이 8.0% 등의 순임

<표 3-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설문응답자 구성							
	남자		여자		합계			
성별	386		435		821			
	(47.0)		(53.0)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156	174	213	173	105	821		
	(19.0)	(21.2)	(25.9)	(21.1)	(12.8)	(100)		
거주지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합계		
	123	134	271	150	143	821		
	(15.0)	(16.3)	(33.0)	(18.3)	(17.4)	(100)		
주택 소유	자가		임대		합계			
	627		194		821			
	(76.4)		(23.6)		(100)			
학력	중학교		고등학교		대졸이상		합계	
	49		315		457		821	
	(6.0)		(38.4)		(55.7)		(100)	
월수입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합계	
	147		418		256		821	
	(17.9)		(50.9)		(31.2)		(100)	
자산	1억 미만		1억 ~ 2억 미만		2억 이상		합계	
	278		254		289		821	
	(33.9)		(30.9)		(35.2)		(100)	
직업	일반회사원	전업주부	학생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기타	합계
	176	127	48	66	48	193	163	821
	(21.4)	(15.5)	(5.8)	(8.0)	(5.8)	(23.5)	(19.9)	(100)

2. 세종시로 인구이동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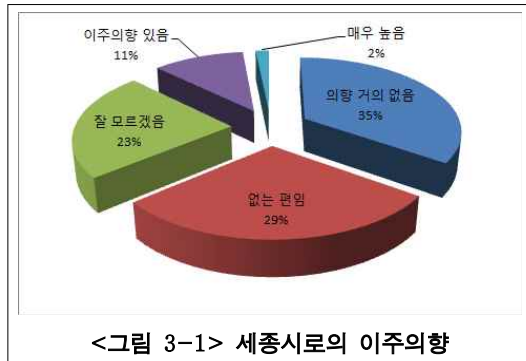
1) 인구이동 성향

□ 세종시로의 이주의향

- 2012년 발족하는 세종시로의 이주의향을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자 821명 중 63.9%인 525명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92명 23.4%임
 - 한편 '이주의향이 있다(매우 높다 포함)'는 응답은 10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2.7%에 해당함

<표 3-2> 세종시로의 이주의향

구 분	의향이 거의 없다	없는 편이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주의향이 있다	매우 높다	합계
빈도	286	239	192	91	13	821
(%)	(34.8)	(29.1)	(23.4)	(11.1)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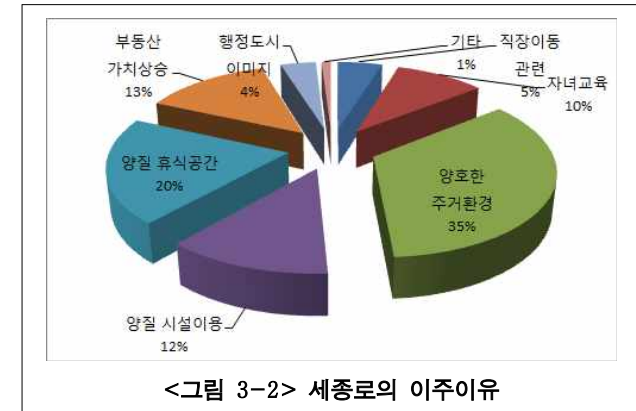


□ 이주이유

- 세종시로 이주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이기 때문에 이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양질의 휴식공간'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부동산적 가치상승'에 따른 이주의향이 13.5% 그리고 '양질의 시설 이용'이라는 이주의향이 12.5%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자녀교육 환경을 위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9.6%에 해당
- 즉 양호한 주거 및 휴식(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점유비율이 전체 이주의향의 67.3%를 차지함.

<표 3-3> 세종시로의 이주이유

구 분	직장이동과 관련하여	자녀교육 환경을 위해	주거환경 양호한 곳	양질의 시설이용	양질의 휴식공간	부동산적 가치상승	행정도시 이미지로	기타 (고향)	합계
빈도	5	10	36	13	21	14	4	1	104
(%)	(4.8)	(9.6)	(34.6)	(12.5)	(20.2)	(13.5)	(3.8)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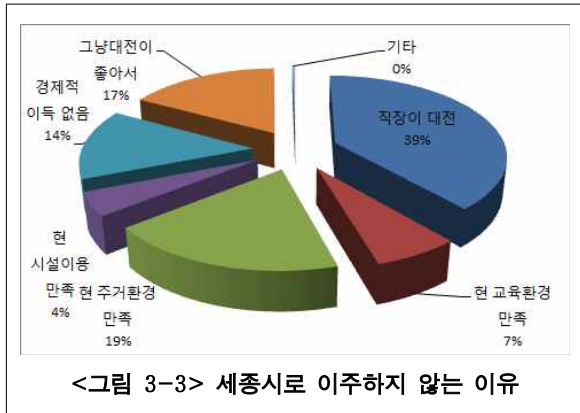


□ 이주하지 않는 이유

- 한편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 '직장이 대전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현 주거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8.9% 그리고 '그냥 대전이 좋아서'라는 응답도 16.7%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이동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이전하지 않겠다는 응답의 1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 자녀교육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6.8%임

<표 3-4>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구 분	직장이 대전이라서	현 자녀교육 환경에 만족	현 주거환경에 만족	현 시설이용에 만족	경제적 이득이 없어	그냥대전 이 좋아서	기타	합계
빈도	272	48	133	32	98	117	2	702
(%)	(38.7)	(6.8)	(18.9)	(4.6)	(14.0)	(16.7)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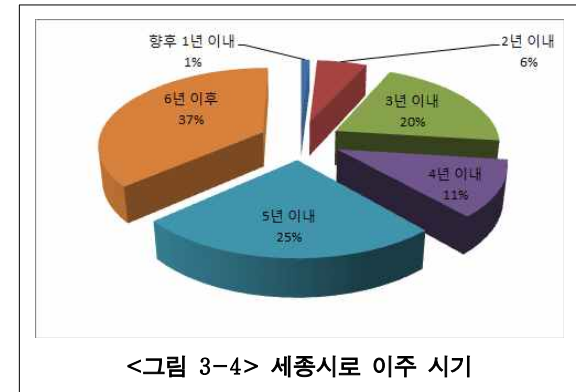


□ 이주시기

- 세종시로 이주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 향후 1년 이내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1.0%로 낮게 나타났고, 누적적으로 2년 이내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6.8%이며, 3년 이내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총 27.0%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4년 이내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총 38.5%이며, 5년 이내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63.5%로 나타났고, 6년 이후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36.5%임
- 즉 5년 이내에 세종시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자는 조사대상 821명의 8.1%인 66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 세종시로 이주 시기

구 분	향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후	합 계
빈도	1	6	21	12	26	38	104
(%)	(1.0)	(5.8)	(20.2)	(11.5)	(25.0)	(3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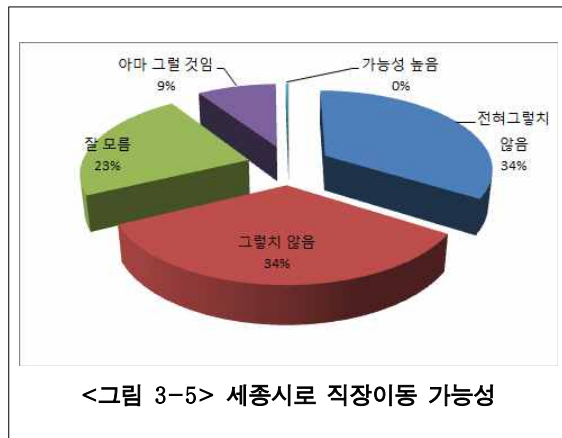
2) 직장이동의 가능성과 통근의사

□ 직장이동의 가능성

- 설문대상자에게 향후 세종시로 직장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장이동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7.8%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로 나타났고, ‘직장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8명으로 응답자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세종시로 직장이동 가능성

구 분	전혀그렇치 않을것이다	그렇치 않을것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 계
빈도	212	212	143	56	2	625
(%)	(33.9)	(33.9)	(22.9)	(9.0)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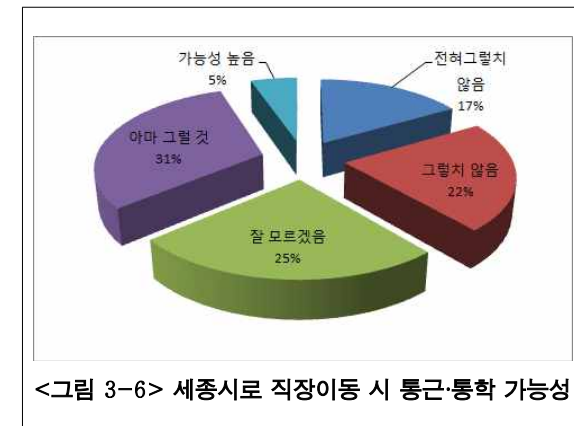


□ 직장이동시 통근통학 의사

- 만약 직장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대전시에서 통근·통학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 ‘통근·통학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6.1%로 나타났으며, 반면 ‘통근·통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8.7%로서 통근·통학할 것이라는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남
 - 한편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5.2%임

<표 3-7> 세종시로 직장이동 시 통근·통학 가능성

구 분	전혀그렇치 않을것이다	그렇치 않을것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 계
빈도	104	138	158	193	33	626
(%)	(16.6)	(22.1)	(25.2)	(30.8)	(5.3)	(100.0)



3) 인구이동의 특성

□ 개인적 성향과 이주성향과의 관계

- 앞서 살펴본, 세종시로의 이주의향을 ‘이주의향이 없다(거의 없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주의향이 있다(매우 높다)’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3가지 유형별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음
-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이주의향은 연령, 거주지 그리고 학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됨
 - 구체적으로 보면, 50대(16.2%), 40대(14.6%)가 20대(5.8%)와 60대 이상(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종시로 이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의 경우도 유성구(20.7%)와 서구(13.7%)가 동구(8.2%)나 중구(9.1%)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성구 조사대상자 중 이주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49.3%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 측면에서는 대졸이상(15.3%)의 학력자가 중학교 졸업이하(8.2%)에 비해 이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이주성향은 9.5%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연령대가 중장년층이고, 거주지가 유성구나 서구이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는 대전시민이 세종시로 이주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통계적 유의확률이 다소 낮기(P<0.059)하나, 자산 측면에서 2억원 이상 보유자(17.0%)가 1억원 미만 자산가(9.0%)에 비해 이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3-8> 개인적 성향별 이주의향분석 : 교차분석

구 분	이주의향				카이 제곱	자유 도	유의 확률	
	없다	잘모르겠다	있다	합계				
성별	남자	253(65.5)	80(20.7)	53(13.7)	386(100.0)	3.146	2	.207
	여자	272(62.5)	112(25.7)	51(11.7)	435(100.0)			
	합계	525(63.9)	192(23.4)	104(12.7)	821(100.0)			
연령	20대	104(66.7)	43(27.6)	9(5.8)	156(100.0)	17.450	8	.026
	30대	103(59.2)	46(26.4)	25(14.4)	174(100.0)			
	40대	130(61.0)	52(24.4)	31(14.6)	213(100.0)			
	50대	110(63.6)	35(20.2)	28(16.2)	173(100.0)			
	60대이상	78(74.3)	16(15.2)	11(10.5)	105(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거주지	대덕구	93(75.6)	18(14.6)	12(9.8)	123(100.0)	30.560	8	.000
	동구	98(73.1)	25(18.7)	11(8.2)	134(100.0)			
	서구	168(62.0)	66(24.4)	37(13.7)	271(100.0)			
	유성구	74(49.3)	45(30.0)	31(20.7)	150(100.0)			
	중구	92(64.3)	38(26.6)	13(9.1)	143(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주택 소유	자가	398(63.5)	143(22.8)	86(13.7)	627(100.0)	2.775	2	.250
	임대	127(65.5)	49(25.3)	18(9.3)	194(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학력	중학교	38(77.6)	7(14.3)	4(8.2)	49(100.0)	9.850	4	.043
	고등학교	207(65.7)	78(24.8)	30(9.5)	315(100.0)			
	대졸이상	280(61.3)	107(23.4)	70(15.3)	457(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월수입	200만원	103(70.1)	33(22.4)	11(7.5)	147(100.0)	5.215	4	.266
	400만원	261(62.4)	101(24.2)	56(13.4)	418(100.0)			
	400만원초과	161(62.9)	58(22.7)	37(14.5)	256(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자산	1억미만	190(68.3)	63(22.7)	25(9.0)	278(100.0)	9.082	4	.059
	2억미만	162(63.8)	62(24.4)	30(11.8)	254(100.0)			
	2억 이상	173(59.9)	67(23.2)	49(17.0)	289(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직업	일반회사원	126(71.6)	35(19.9)	15(8.5)	176(100.0)	9.751	12	.638
	전업주부	78(61.4)	30(23.6)	19(15.0)	127(100.0)			
	학생	29(60.4)	14(29.2)	5(10.4)	48(100.0)			
	전문직	38(57.6)	18(27.3)	10(15.2)	66(100.0)			
	공무원	31(64.6)	9(18.8)	8(16.7)	48(100.0)			
	자영업	118(61.1)	47(24.4)	28(14.5)	193(100.0)			
	기타	105(64.4)	39(23.9)	19(11.7)	163(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 주거만족도와 이주성향과의 관계

- 주거만족도와 이주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거환경 시설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주성향의 차이는 주거만족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즉 이주성향이 있는 그룹(39.4%)은 이주성향이 없다는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만족도 비율(42.3%)이 낮았으나, 잘모르겠다는 그룹에 비해서는 만족도 비율(32.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주성향이 있는 그룹의 주거불만족 비율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주거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살펴보면, 이주성향은 상업시설, 녹지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업시설의 경우, 이주성향이 있는 그룹의 시설만족도 비율이 40.4%로서 이주성향이 없는 그룹의 만족도 비율 38.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비율도 이주성향이 있는 그룹의 비율(22.1%)이 이주성향이 없는 그룹(27.0%)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남
 - 또한 녹지시설의 경우도, 이주성향이 있는 그룹의 만족도 비율(51.9%)이 이주성향이 없는 그룹의 만족도 비율(38.9%)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도 비율은 25.0%로 이주성향이 없는 그룹의 24.6%와 유사하게 나타남
 - 한편 주거시설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는 다소 낮으나(P=0.059), 상업시설과 녹지시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이주성향의 그룹은 현재의 상업시설과 녹지시설에 대해 만족하나 좀 더 나은 환경으로의 이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측됨

<표 3-9> 주거만족도와 이주의향 분석 : 교차분석

구 분	이주의향				카이 제곱	자유 도	유의 확률	
	없다	잘모르겠다	있다	합계				
상업 시설	불만족	142(27.0%)	40(20.8%)	23(22.1%)	205(25.0%)	9.566	4	0.048
	보통	180(34.3%)	89(46.4%)	39(37.5%)	308(37.5%)			
	만족	203(38.7%)	63(32.8%)	42(40.4%)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교통 시설	불만족	171(32.6%)	54(28.1%)	28(26.9%)	205(25.0%)	5.734	4	0.220
	보통	159(30.3%)	64(33.3%)	43(41.3%)	308(37.5%)			
	만족	195(37.1%)	74(38.5%)	33(31.7%)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문화 시설	불만족	205(39.0%)	75(39.1%)	41(39.4%)	205(25.0%)	1.103	4	0.894
	보통	184(35.0%)	61(31.8%)	34(32.7%)	308(37.5%)			
	만족	136(25.9%)	56(29.2%)	29(27.9%)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교육 시설	불만족	132(25.1%)	45(23.4%)	20(19.2%)	205(25.0%)	3.739	4	0.443
	보통	195(37.1%)	83(43.2%)	44(42.3%)	308(37.5%)			
	만족	198(37.7%)	64(33.3%)	40(38.5%)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주거 시설	불만족	90(17.1%)	33(17.2%)	21(20.2%)	205(25.0%)	9.077	4	0.059
	보통	193(36.8%)	88(45.8%)	31(29.8%)	308(37.5%)			
	만족	242(46.1%)	71(37.0%)	52(50.0%)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녹지 시설	불만족	129(24.6%)	40(20.8%)	26(25.0%)	205(25.0%)	18.889	4	0.001
	보통	192(36.6%)	91(47.4%)	24(23.1%)	308(37.5%)			
	만족	204(38.9%)	61(31.8%)	54(51.9%)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체육 시설	불만족	175(33.3%)	68(35.4%)	32(30.8%)	205(25.0%)	7.453	4	0.114
	보통	208(39.6%)	77(40.1%)	32(30.8%)	308(37.5%)			
	만족	142(27.0%)	47(24.5%)	40(38.5%)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보건 시설	불만족	131(25.0%)	37(19.3%)	25(24.0%)	205(25.0%)	4.493	4	0.343
	보통	209(39.8%)	91(47.4%)	40(38.5%)	308(37.5%)			
	만족	185(35.2%)	64(33.3%)	39(37.5%)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전체 시설	불만족	96(18.3%)	26(13.5%)	15(14.4%)	205(25.0%)	12.136	4	0.016
	보통	207(39.4%)	103(53.6%)	48(46.2%)	308(37.5%)			
	만족	222(42.3%)	63(32.8%)	41(39.4%)	308(37.5%)			
	합계	525(100%)	192(100%)	104(100%)	821(100%)			

□ 직장이동 대상자의 특성 : 이동가능성과 개인적 성향과의 교차분석

- 직장이동의 가능성과 개인적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직장이동에 대한 가능성(이동할 것이다, 잘모르겠다,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과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직업에 따라 직장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됨
 -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연령측면에서는 30대(12.0%)와 40대(12.4%)가 20대(4.6%)와 60대 이상(6.7%)에 비해 세종시로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직업측면에서는 전문직(18.2%)과 자영업(11.2%)가 다른 직종에 비해 세종시로의 직장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통계적 유의도가 다소 낮기는 하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세종시로의 직장이동 가능성이 높으며, 거주지 측면에서는 서구 거주자가 다른 구에 비해 세종시로의 직장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개인적 성향별 직장이동과의 관계분석 : 교차분석

구 분	직장이동				카이 제곱	자유 도	유의 확률
	없다	잘모르겠다	있다	합계			
성별	남자	237(68.7%)	70(20.3%)	38(11.0%)	4.838	2	0.089
	여자	187(66.8%)	73(26.1%)	20(7.1%)			
	합계	424(67.8%)	143(22.9%)	58(9.3%)			
연령	20대	61(56.5%)	42(38.9%)	5(4.6%)	28.194	8	0.000
	30대	95(63.3%)	37(24.7%)	18(12.0%)			
	40대	119(70.0%)	30(17.6%)	21(12.4%)			
	50대	102(74.5%)	25(18.2%)	10(7.3%)			
	60대이상	47(78.3%)	9(15.0%)	4(6.7%)			
	합계	424(67.8%)	143(22.9%)	58(9.3%)			
거주지	대덕구	55(64.7%)	23(27.1%)	7(8.2%)	14.646	8	0.066
	동구	83(81.4%)	11(10.8%)	8(7.8%)			

	서구	141(65.0%)	51(23.5%)	25(11.5%)	217(100%)	0.466	2	0.792
	유성구	71(62.3%)	33(28.9%)	10(8.8%)	114(100%)			
	중구	74(69.2%)	25(23.4%)	8(7.5%)	107(100%)			
	합계	424(67.8%)	143(22.9%)	58(9.3%)	625(100%)			
주택 소유	자가	321(67.7%)	107(22.6%)	46(9.7%)	474(100%)	3.111	4	0.539
	임대	103(68.2%)	36(23.8%)	12(7.9%)	151(100%)			
	합계	424(67.8%)	143(22.9%)	58(9.3%)	625(100%)			
학력	중학교	18(72.0%)	4(16.0%)	3(12.0%)	25(100%)	3.663	4	0.454
	고등학교	144(66.7%)	56(25.9%)	16(7.4%)	216(100%)			
	대졸이상	262(68.2%)	83(21.6%)	39(10.2%)	384(100%)			
	합계	424(67.8%)	143(22.9%)	58(9.3%)	625(100%)			
월수입	200만원	68(66.0%)	28(27.2%)	7(6.8%)	103(100%)	5.788	4	0.216
	400만원	217(70.0%)	62(20.0%)	31(10.0%)	310(100%)			
	400만원초과	139(65.6%)	53(25.0%)	20(9.4%)	212(100%)			
	합계	424(67.8%)	143(22.9%)	58(9.3%)	625(100%)			
자산	1억미만	146(68.2%)	53(24.8%)	15(7.0%)	214(100%)	15.668	8	0.047
	2억미만	132(66.7%)	40(20.2%)	26(13.1%)	198(100%)			
	2억 이상	146(68.5%)	50(23.5%)	17(8.0%)	213(100%)			
	합계	424(67.8%)	143(22.9%)	58(9.3%)	625(100%)			
직업	일반회사원	126(72.4%)	37(21.3%)	11(6.3%)	174(100%)	15.668	8	0.047
	전문직	38(57.6%)	16(24.2%)	12(18.2%)	66(100%)			
	공무원	38(79.2%)	6(12.5%)	4(8.3%)	48(100%)			
	자영업	123(65.8%)	43(23.0%)	21(11.2%)	187(100%)			
	기타	99(66.0%)	41(27.3%)	10(6.7%)	150(100%)			
	합계	424(67.8%)	143(22.9%)	58(9.3%)	625(100%)			

제3절 2030세대 인재이동 예측과 유출자 특성

1. 지역인재로서의 2030세대의 특성

- 2011년 현재 20대와 30대로 살아가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들을 2030(청년)세대로 지칭
- 2030세대는 2012년 현재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연령대를 지칭
 - 인구학적으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출생자임
- 대전시의 현 인구분포를 보면, 전체 인구중 31.3%를 점유함
 - 2010년 12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로 20세-39세 연령대의 인구는 469,916명으로 총인구 1,503,664명의 31.3%에 달하고 있음
- 2030세대는 2030년 대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미래 핵심세대
 -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이들은 40세에서 59세의 연령대에 걸쳐 대전시 전체 인구의 30.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생산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대로서 대전시 발전을 지탱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연령층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2030세대의 정주의식과 이주 태도를 분석해보면, 향후 대전시 인구이동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2030세대의 정주의식과 이주 태도 조사 분석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대전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운영의 일환으로 20~30대 연령층의 의식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2030세대의 지역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대공감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됨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2. 2. 20 ~ 2. 29

- 조사대상 : 대전광역시 거주자 500명

(성별·자치구별 같은 표본수, 연령별 4세 단위 표본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면접조사/결과자료 코딩 및 분석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38% 포인트

(3)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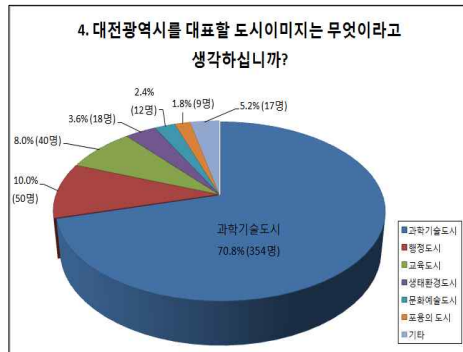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50명	50.0%
	여성	250명	50.0%
연령	① 20세~24세	123명	24.6%
	② 25세~29세	127명	25.4%
	③ 30세~34세	119명	23.8%
	④ 35세~39세	131명	26.2%
거주지	동구	100명	20.0%
	중구	100명	20.0%
	서구	100명	20.0%
	유성구	100명	20.0%
	대덕구	100명	20.0%
거주기간	1년 미만	16명	3.2%
	1년~5년 미만	44명	8.8%
	5년~10년 미만	37명	7.4%
	10년~15년 미만	61명	12.2%
	15년~20년 미만	99명	19.8%
	20년 이상	243명	48.6%
직업	회사원	147명	29.4%
	전문직	70명	14.0%
	공공기관(군인, 공무원, 공기업 등) 종사자	37명	7.4%
	대학(원)생	110명	22.0%
	자영업	59명	11.8%
	취업준비생	43명	8.6%
	주부	34명	6.8%
참여자수		500명	100.0%

(4) 조사 및 분석 내용

- 2030세대의 일반적 의식
 -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며, 만족하는 비율

- 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대전광역시에 대한 자긍심은 자랑스럽다는 응답비율 44.4%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비율 6.2%보다 아주 높게 나타남
- 대전광역시를 대표할 도시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 과학기술도시라는 응답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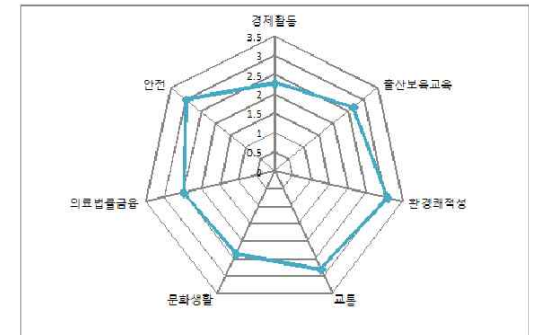
항목	빈도	%
과학기술도시	354	70.8
행정도시	50	10.0
교육도시	40	8.0
생태환경도시	18	3.6
문화예술도시	12	2.4
포용의 도시	9	1.8
⑦ 기타	17	5.2
합계	500	100.0



- 대전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앞선 자긍심과는 다른 결과로 높다라는 판단이 19.2%로 낮을 것이다라는 판단 35.0%에 비하여 낮은 응답비율을 보임
-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관심 정도 또한 유보적인 응답인 그저 그렇다가 51.8%, 적다라는 응답이 26.4%, 많다라는 응답이 21.8%로 비교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대전시의 인구유출과 관련하여, 2030세대가 추구하는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 타도시에 비해 대전의 거주(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물어 본 결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평균 2.67점으로 나타남
- 7개 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는 환경이 3.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3.00) > 대중교통(2.82) > 아이키우기 및 교육(2.67) > 고급서비스 수준(2.47) > 문화생활과 여가(2.36) > 경제활동(2.29)의 순으로 나타남
- 현 2030세대의 만족도가 낮은 문화생활 여건 및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항목	점수
경제활동(취·창업,기업,쇼핑 등)	2.29
아이 키우기(출산·보육) 및 교육	2.67
환경(공원녹지,하천,공기) 쾌적성	3.07
대중교통 이용 및 도로 관리	2.82
문화생활(전시공연스포츠)과 여가	2.36
고급서비스(의료법률금융) 수준	2.47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안전	3.00
전체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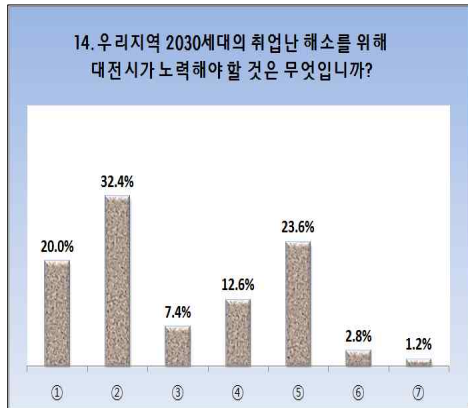
- 타도시에 비해 대전은 2030세대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42.6%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3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이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27.8%), 수준 높은 공연·전시(19.6%), 편리한 대중교통체계(15.6%)의 순으로 나타남
- 2030세대가 대전광역시 시책 홍보시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생각하는 것은 TV 방송인 것(64.4%)으로 나타났으나 SNS라고 응답한 비율과 인터넷신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

- 2030세대로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가장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수 및 수입, 직업의 보람(하고 싶은 일) 순으로 나타남
- 취업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 결과, 좋은 일자리 부족 54.2%, 일자리 정보 부족 15.0%, 지방학교 출신 차별 13.2%의 순으로 나타나, 2030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마련이 정책적 과제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 우선해야 할 정책은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 청년고용할당제 및 장려금 확대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내 취업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항목	빈도	%
① 청년고용할당제, 장려금 확대	100	20.0
②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	162	32.4
③ 기업 인턴십 지원	37	7.4
④ 개인능력개발(학원비 등) 지원	63	12.6
⑤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	118	23.6
⑥ 대전시 주관 취업캠프 운영	14	2.8
⑦ 기타	6	1.2
합계	500	100.0



(※ 기타 - 대기업 유치, 비정규직 처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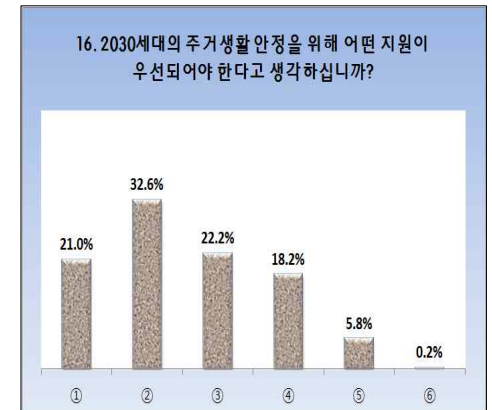
○ 결혼과 주거안정에 대한 요구

- 2030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비용 부담 때문

이 34.6%, 미취업상태이기 때문 23.6%, 직업·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가 22.0%의 순으로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2030세대의 주거 생활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아파트 분양가 저감 32.6%, 내집마련 자금 특별용자가 22.2%,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21.0%, 공공 임대주택 확대가 18.2%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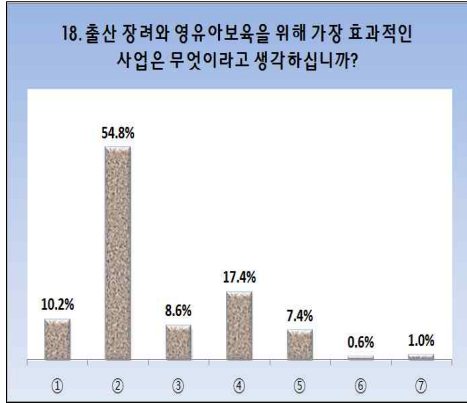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소형주택 공급 확대	105	21.0
② 아파트 분양가 저감	163	32.6
③ 내집마련 자금 특별용자	111	22.2
④ 공공 임대주택 확대	91	18.2
⑤ 전세자금 특별용자	29	5.8
⑥ 기타(신용대출)	1	0.2
합계	500	100.0



○ 출산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

- 2030세대가 결혼 이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향후 보육비가 부담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가 37.6%에 이르러 이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출산 장려와 영유아보육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월별 유아보육료 지원이 54.8%, 보육시설 확충 17.4%, 일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 10.2%로 나타남
- 월별 유아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지원액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항목	빈도	%
① 출산장려금 지급(일시금)	51	10.2
② 유아보육료 지원(월별)	274	54.8
③ 다자녀 가족 할인·감면제도	43	8.6
④ 보육시설 확충	87	17.4
⑤ 어린이 무상의료	37	7.4
⑥ 태아·어린이보험 가입	3	0.6
⑦ 기타	5	1.0
합계	500	100.0



(※ 기타 - 무상교육, 안정적인 직업, 육아휴직제도, 저렴한 보육료 등)

○ 기타 대전광역시 2030세대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 요구

-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대전시가 2030세대공감 시책으로 추진할 내용이 무엇 인지를 물어보고, 응답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구분	내용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로 다양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이고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 근무하기 자랑스러운 직장 분위기 조성 - 기업인턴십제도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적극적인 활용 - 연구단지에 지역출신 고용 요망 - 수도권 수준의 임금 인상 -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청업체 및 도급업체 관리 감독 철저 - 노인과 저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 지역할당제 및 지방대출신 취업제도 확대
출산·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 확대 - 보육료 확대, 자치구별 동일한 출산 장려금 지원 -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관리
문화·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세대 건전한 놀이공간 부족 - 2030세대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시설 마련 - 다양한 공연 유치 - 공연이나 문화산업 투자로 콘텐츠개발 촉진 - 스포츠 및 레저공간 확대 -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공급 확대 - 아파트 분양가 인하 -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인하 - 장학금 확대 운영 - 도서관 확충 - 공교육의 질적 향상,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 전문직을 위한 다양한 무료교육 실시 - 지방대학 편견 해소 -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 지하철 노선 확대, 대덕구 지하철 개통 - 편리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마련
도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마련 - 녹지 공간 확대 - 하천 생태 살리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의 특색을 살린 자체적 제도 마련 - 물가안정 - 4대강 사업 중단 - 흔들리지 않는 공무수행 - 의료서비스 확충 - 장애인 복지정책 활성화 - 지역발전과 범죄예방 - 지방자치제 폐지

제 4 장

대전시의 스마트 인재관리 방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시사점

제2절 대전시 인재관리의 여건분석과 정책방향

제3절 인재관리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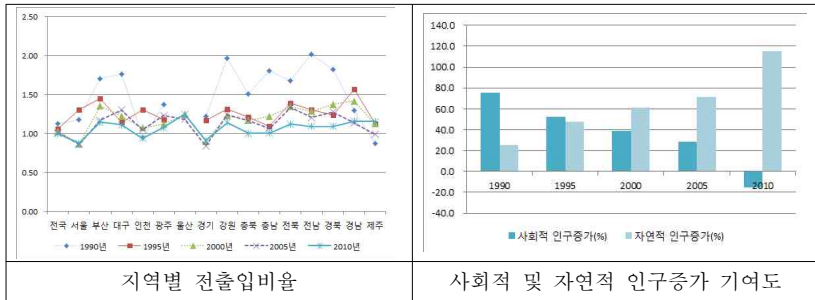
제 4 장 대전시의 스마트 인재관리 방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종합

□ 대전시 인구증가의 둔화 및 감소 예상

- 대전시 인구증가가 인구구조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어, 향후 인구증가의 뚜렷한 둔화 및 감소가 예상됨
 - 대전시 인구증가가 사회적 인구증가(전출입) 보다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증가의 둔화 및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회적 인구변화에서, 대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로의 인구유출이 지속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구증가 및 변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도(직장 창출 등) 상승에 따른 전입인구의 증가가 요구됨



<그림 4-1> 대전시 인구이동 특성

□ 대전시 인재(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수도권으로의 유출 심화

- 전문대졸업자의 유출-유입구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순유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유는 직장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유출-유입구조 분석결과 또한 수도권으로 유출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 인재(대학원졸업자) 순유입 증가

- 전문대졸업자나 4년제 대졸자의 인구이동 특성과 다른 양상으로, 대학원졸업자는 순유입자가 2009년에 391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부터의 순유입자수가 24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하여 경기도는 64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으며, 충남 또한 9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음
 - 대학원 졸업자의 신규취업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전문대졸과 대학졸업에 비하여 순유입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전시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음

□ 경력직 노동력의 유출 심화

- 대전지역 대학원 졸업자의 유출구조를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단위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대전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순유출자가 4,739명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보면, 서울로의 순유출자수가 1,10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부산 924명, 광주 909명, 대구 818명, 충북 752명의 순유출자가 있었음

- 이에 비하여 충남지역과는 625명의 순유입자가 있었음
- 경력직 노동인력의 재취업의 특성은 순유출자의 수가 보여주듯이,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대전광역시와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음

□ 세종시 이전의향과 개인적 특성 및 주거만족도 관계있음 확인

- 대전시민의 세종시 이전의향은 개인적 특성이나 주거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민 중 유성구나 서구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중장년층이 세종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상업시설과 녹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세종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인적 성향에 맞는 주거여건의 '맞춤적 개선'이 세종시로의 이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종시로의 적절한 지역교통수단 확보와 대전시민의 세종시 이주 완화 효과 예상

- 또한 직장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대전시로 통근·통학하고자 하는 응답이 38.7%로 나타남
 - 따라서, 대전시와 세종시로의 적절한 지역교통수단의 확보는 직장이동에 따른 주거이동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전시로 초기 이주하는 세종시 근무자에게도 지속적인 대전시에서의 정주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 예상

-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충남도청 이전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총 8,0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원도심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2. 인재관리 시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

- 그동안 지방 자치 행정의 핵심으로 인구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전광역시에는 출산 장려금, 용품지원, 보험 및 저축가입 등 갖가지 보상책으로 인구 유입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
 - 단기적 과제로 출산을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주소이전 및 전입 세대 지원, 장기적 과제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교육역량 강화 확대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최근 각 기초자치구에서 제시 및 실시하고 있는 인구관련 대책도 나열식이어서 그 추진 성과는 의문시 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전국 단위에서 타시도 추진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종합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책에 머무는 경향이 있음
 - 출산장려 시책의 경우, 거의 모든 광역단체가 출산장려를 위한 현물 및 현금 지급, 보육부담 경감 등을 공통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구유입 정책은 주로 기업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귀농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함
- 인구유출방지대책은 앞선 두 시책보다 지역에 따라 보다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미래 인재를 어떻게 지역에서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독창적임

<표 4-1> 타시도의 인구관리 시책 사례

시도별	출산장려대책	인구유입대책	인구유출방지대책
부산	· 출산장려금 지급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과학기술 R&D 진흥 · 산업용지, 기업지원강화	· 재래시장 활성화 · 실업해소 대책
충남	· 출산장려금지급(차등) · 출생자 신고 적극 독려	· 전입세대 환영 서한문발송 · 도내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 자동차 이전 등록비 지원	·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 대학생 장학금 지급 · 대학생 주민등록 이전
경남	· 출산장려금, 선물지급 · 영유아, 양육비 지급 · 보육시설확충 등	· 도내 공공시설 이용 우대 · 전입세대 관광지 사용료 면제	·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 주택개량, 빈집알선, 지방개발투자금지급 등
전남	·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 보육시설확충	· 경제자유무역지구 우선개발 · 투자촉진지구 투자유치 · 벤처기업 적극 유치	· 농어업 경쟁력 제고 · 1시군 1명문고 육성 · 도내대학 졸업생 취업 확대
제주도	· 저소득자녀 보육료지원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지원 · 불임부부, 산모도우미지원	· 노후불량주택개보수시 귀농가 지원	· 농어촌주택개발용자금 지원 ·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화장실 개선사업

- 대전광역시의 시책과 전국차원에서 시책 검토 결과, 시사점으로 향후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우선, 인구관리 시책 담당자의 연속성과 업무 분장의 문제를 확고하게 정해야 함. 대전광역시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

- 효과적인 인구관리 시책의 전개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 인구정책이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
- 인구관리 시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이 시급함. 출산장려 관련 조례 뿐만아니라,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 지자체 간 협조체계가 필요함. 대전광역시 기초자치구와의 협조체계 뿐만아니라, 세종시와의 상생방안 등, 대전광역시가 거점지역으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2절 대전시 인재관리의 여건분석과 정책방향

1. 대전시 인재관리 여건분석

- 앞에서는 대전지역의 인구현황 및 인구가동 실태, 인재의 유출입 상황 및 구조를 살펴 보았는데, 대전시 인재관리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전지역 대학교육 여건의 상대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 대전시 대학들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대전시 인재관리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상위권 ●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개발인력 집중 ●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모두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사립 일반대/산업대, 전문대 -특수목적대(KAIST,대학원대학,기능대) ● 시의 대학지원 정책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협력계 운영 -대학발전을 위한 협의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부재 ● 제조업 기반의 취약 ● 산학연 네트워크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 R&D 특구 ● 지역혁신을 위한 시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벤처창업 재활성화 ●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성, 활성화 ● 세종시 건설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 교육개방에 따른 외국 대학 진출 ●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인재유출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

1) 강점 요인과 과제

- 대전시는 초·중등을 막론하고 학력수준이 각종 조사, 보도를 통해 발표된 것처럼 전국의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음
 - 따라서 대전의 대학들은 이러한 우수한 학력 수준의 학생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자녀 교육 여건이 양호한 지역임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임을 브랜드화 하는 전략을 취하여야 함
- 대전은 30년전에 조성된 대덕연구단지의 각종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한 고급 연구 개발인력 등 연구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밀도있게 집중되어 있음
 - 대전 지역에서는 이러한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전국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분야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함
 - 인재관리 또한 이러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들 우수인력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전지역의 대학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배출이나 산업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4년제 대학으로는 연구 중심 또는 교육 중심의 일반 국립대와 사립대, 산학협력 중심의 산업대가 있고, 2년제 대학으로는 전문대와 기능대가 있으며, KAIST,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과 같은 특수 목적의 대학이 다양하게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 중 상대적으로 가장 다양한 구성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살려 이 곳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 산업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대전시는 대학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고, 대학 총학장들과 관련 기관의 대표인사들로 대학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학 교육의 혁신에 활력소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조직체를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대학이 지역발전과 적극 연계될 수 있

도록 하고, 지역사회 또한 대학의 인재양성과 적극 연계되는 지역사회, 대학 교육 융합형 인재관리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2) 약점 요인과 과제

-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전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나 선도 기업체가 없어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국내외의 우수한 기업을 지역내에 유치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또한 산학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또한 대전지역 대학의 졸업생과 대학 교원의 50%정도가 이공계인데 비해, 대전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등의 3차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은 15%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산학협력이나 지역 산업을 위한 인력배출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 역시 대전시 차원에서 취약한 기존의 전통산업을 보강하고, 콜센터 등 사회서비스 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대전지역에 다양한 기능의 대학이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수나 학생수 측면에서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의 비율이 7대 도시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내의 여건과 함께 최근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방침을 감안할 때, 대전시의 각 대학들은 대학내의 구조개혁은 물론이고, 대학간의 M&A 등 통폐합을 통해 대전지역 대학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대 도시 학교수 및 학생수 비교>

구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학교수	고등학교(A)		305	139	87	104	63	59	42
	대학(B) (전문대포함)		63	24	11	10	16	16	3
	B/A		0.21	0.17	0.13	0.10	0.25	0.27	0.07
학생수	고등학교(C)		362,705	138,888	100,411	99,293	57,860	58,196	43,560
	전문대		68,052	73,717	64,386	40,014	40,368	38,381	13,394
	대학		796,919	191,806	62,117	40,328	88,535	110,052	18,885
	대학합계(D)		864,971	265,523	126,503	80,342	128,903	148,433	32,279
	D/C		2.38	1.91	1.26	0.81	2.23	2.55	0.74

(자료 : 교육통계연보)

3) 기회 요인과 과제

-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인재활용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 대전시는 기존과 같이 연구개발 단계의 참여는 물론 벤처 창업, 기술 이전, 기술 및 지식의 경영관리 등 연구 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함
 - 또한 그 결과로서 활성화되는 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산학협력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맥을 같이하여, 대전시가 대전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처함
 - 대전시는 연구, 교육, 산학협력 등의 분야에서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산학연관 클러스터에 구성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대전시 인근 세종시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강화
 - 세종시와의 상생방안 전략을 세종시에서 당분간 취약한 분야인 교육, 복지, 문화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의 정주환경을 구축해나갈 필요 있음

4) 위협 요인과 과제

- 지역사회에 인재양성 기관의 대표적인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 시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위기상황을 접하고 있는 바, 그 결과가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입학정원의 의무적 감축, 대학간 통폐합 유도, 신입생 충원률, 교원확보율 등의 실적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등의 대학 정책은 대전의 대학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학도 산업이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대학 정책 방향은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2. 대전시 인재관리의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 인재관리 시책은 결국 인구유입을 최대화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첫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인구이동은 결국 직장관련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입증된 바 있음
 - 대전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지식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첨단산업 등 미래 가치를 주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함
- 둘째, 지역에서 배출되거나 은퇴하는 고급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지역의 대학, 카이스트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취·창업 여건 조성, 양질의 생활환경 구축 등을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
 - 과학기술 은퇴인력에 대한 은퇴자 마을 조성, 은퇴 인력의 지식 및 기능 기부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 셋째, 대전으로의 귀향유도를 위한 매력적인 도시여건을 조성해야 함
 - 도시민이나 출향민의 귀향유도를 위한 매력적인 도시여건으로 테마마을(예술가촌, 장수촌, 동호인촌 등) 조성사업 추진
 - 전통산업 연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귀향 생활여건 조성
- 넷째, 주민등록 이전 등 기존 인구관리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야 함
 - (가칭) 대전시민되기 운동을 통하여 주민등록 전입 유도
 - 제2의 고향 갖기 운동을 통하여 대전시의 대학, 기관, 단체,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전입신고 유도
- 다섯째,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 문화 인프라 확충
- 세부사업 및 시책 추진은 시간 및 공간 차원을 고려하여 추진
 - 세종시 건설과 충남도청 이전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전략 및 시책 발굴하여 추진
 -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과제와, 중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사업 추진

제3절 인재관리 세부 추진과제

1. 단기적 과제

1) 주소이전 및 전입세대 지원

- 대전시민되기 운동과 연계하여 대전시 직장, 학업,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주소 이전 추진
 - 대전시에 종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대전시민되기 적극 홍보
 - 유대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 당사자 뿐만아니라 가족에게 정착용자금 및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전개
- 유동인구 대전시 전입신고 및 정착화 유도
 - 각종 간담회 및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을 활용하여, 전입자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 제공
 - 대학생에게 원도심을 활용한 기숙사 거주 우선권, 교통비 지원
 - 기업체 종사자에게 정착용자금 지원 및 알선, 교통비 지원
- 뉴스타트 서비스 제도 시행
 - 대전으로 전입하는 세대 중 고교생이 있는 세대를 선정하여, 자녀의 학비 지원, 장학제도 실시
 - 학비 지원 외에 상·하수도 요금(50% 감면, 1년간),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1년간) 등 공공요금 지원을 정착 초기에 제공

2) 인재 관리를 위한 통계 생산 및 활용

- 인재유출입 구조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활용
 - 매년 대전시에 적합한 인재 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조사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한 분석, 정책에 회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대전광역시 어메니티 통계를 구축하여 지역정착여건 우수성 홍보
 - 어메니티라는 용어는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뜻하는 것으로 대전시가 만족감과 쾌적감에서 타도시에 비하여 월등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
 - 이러한 지표에 따른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 이 결과물을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하고, 각종 관련기관과 연계된 홍보매체를 활용도록 함

3) 세종시 입주민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유입촉진 방안

- 세종시 초기 입주민의 입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략적인 유입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입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정착태도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세종시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서비스 발굴
 - 대전시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계획 제시
- 대전시 「시민 홍보단」 구성 및 출향 공직자 활용 전략 홍보
 -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대전 시민 홍보단」 구성, 관련 이전 기관 방문 홍보
 - * 전담 홍보 기관 선정 후 방문 홍보(대전시 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등)
 - 각 이전기관별 우리시 출향 공직자를 활용, 기관 내부망, e-mail 등을 통한 홍보자료 배부 및 내부 홍보 활동 독려
 - *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주관, 출향 공직자 간담회 추진
- 세종시 초기 입주민을 위한 대전시 생활정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주택, 교육 등 이주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 별 생활정보 자료 (홍보책자, 리플릿 등) 제작

- 전체 이주예정기관 공무원, 출연기관 종사자에 배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렴한 아파트 가격 ② 우수한 교육 여건 ③ 다양하고 즐거운 여가활동 ④ 양질의 의료·건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편리한 대중교통 ⑥ 쾌적하고 다양한 쇼핑환경
생활정보 책자 표지	생활정보 책자 주요 내용

<그림 4-2> 대전시 생활 정보 자료 주요 내용

- 세종시 이주자 대상 생활정보 설명회 및 지역방문행사 개최
 - 대전·행복청 공동, 이주자 생활정보 설명회 개최
 - 세종시 건설 현황 및 대전시 주거, 문화 등 정주여건 설명 등
 - *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에서 각 1회 개최 / 총 2회
 - 세종시 첫마을 및 노은지구,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 주요 생활 거점을 방문하는 지역 방문 행사 병행

4) 이주자 유입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대전시 「이주자 지원 조례」 제정
 - 전입금 지원(가구당 50만원), 저금리 주택 용자 지원(5천만원 한도, 연 3.5% 금리) 및 이자 차액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 기 거주자와의 형평성, 소요 예산(연간 최대 5억 예상) 등을 고려, 3년 한시조례로 제정 추진

〈 타 시·군 전입자 지원 사례 분석 〉

- ❖ 경남 사천시 :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06. 12. 26 시행)
 - 시 운영 문화 예술 시설 무료관람권 제공, 전입 대학생 상품권 지급(10만원)
- ❖ 경남 남해군 :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근거 ('07. 1. 1 시행)
 - 전입 지원금 지원(30만원), 전입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 등
- ※ 광역지자체 차원의 이주자 지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생활정보 도우미」 시행 등 이주자 생활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우리시 '120콜센터' 내 전담 이주 상담 창구 개설
 - * 상담 매뉴얼 작성비치, 상담 인력은 기존 인력 업무 재조정을 통해 확보
 - 대전시와 세종시(특히 행복청)이 공동으로 세종시 이·정주 정보서비스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
 - 제공 서비스로는 대전시의 주택정보 제공, 주택매입·임대 알선, 학교정보 및 취학알선, 문화예술기관 및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및 이용혜택의 제공 등으로 함. 대전시 측의 이·정주 서비스 창구는 시청이나 유성구청에 두도록 함
 - 기 전입 인구를 활용, 우리시 거주 희망자에게 이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 도우미」 시행
 - * 자운대, 정부대전청사, 법원 등 근무자 활용 /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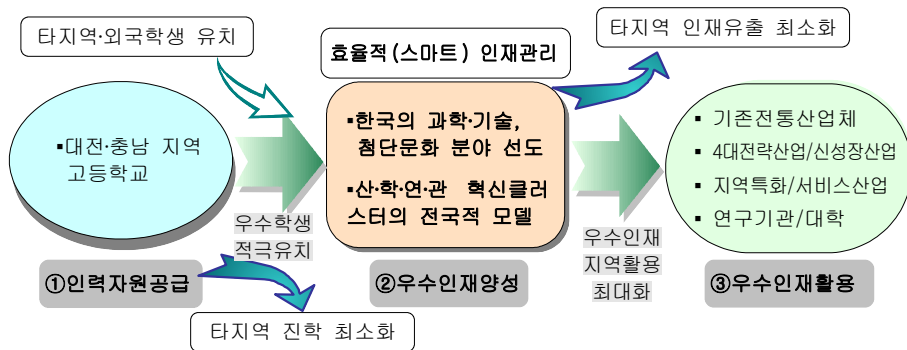
2. 중장기적 과제

1)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세종시 이전 관련 배후지역 사업아이템 발굴 및 관련 기업 유치 추진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전담부서의 활성화를 통해 출향기업인, 세종시 이전 예상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
 - 유성구를 중심으로 동종업종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세종시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해 대전시에 관련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지원-창업지원센터 활성화
 - 대전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활용
 - 법인 및 공장 설립에서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가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 부여
 - 카이스트,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 개최 시, 입상자의 사업화를 위한 제반 지원방안 마련, 조속 시행
 - 소규모 창업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용이한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인력의 창업을 위한 유입률 제고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특구 등 공공기관 인프라 확충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방안 수립, 일자리 제공
 - 대전시의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하되, 세종시 이전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일자리에 관련 이전기관 종사자 가족의 취업과 연계하여 추진

2) 인재 양성 및 활용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추진

- 지역의 효율적인 인재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핵심 과제는,
 - ☞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해서,
 - ☞ 이들을 어떻게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실력있는 인재로 관리하고,
 - ☞ 인재를 어떻게 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가로 요약
- 이에 대한 개념을 좀더 구체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4-3> 대전지역 인재 양성 활용 플랫폼 개념도

- 먼저 우리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의 지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들을 대전 지역 대학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 ☞ 이를 위해서는 대전지역 대학들이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선진화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 대학에 대한 대전지역 대학들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해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해야 함
-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인 대학은 이들을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필

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데, 이를 위해 대전 지역의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

- ☞ 첫째는 대덕 R&D특구의 출범과 더불어 대전 지역 대학들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와 첨단문화 분야만큼은 한국에서 최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대학 공동의 특성화를 기하여,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이나 연구기관 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 ☞ 두번째는 대학-연구기관-산업체-지자체로 구성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전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모델을 만드는데 지역 대학이 모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대전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
 - ☞ 대전지역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의 수요처는 기존 전통산업분야, 새로 지정된 4대 전략산업, 4대 신성장산업 분야, 첨단문화산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 연구소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우수한 인적 자원의 지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각종 효과적인 제도 도입·시행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함

3) 관내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 효율화 방안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의무화
 - 대전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내 대학의 공과계열 학과에 공학교육인증(ABEEK) 도입을 의무화
 - 산업체에서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키고, 인력 채용시 인증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
-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 각 대학이 대전충청 지역의 산업체 현장에 교육장을 설치하여(off-campus) 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규 학위과정을 실시

- 교육과정 편성시 교육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재교육이 실현되도록 함.

○ 계약형 학과제 설치 - 주문식 교육 실시

- 대전 지역의 기업체, 공공기관, 군관련 기관과 대학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학과나 전공과정을 계약에 의해 설치하고 운영

- 대전지역에는 계약형 학과를 요구할 만한 대기업이 부족하나, 상대적으로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군관련 기관 등이 많으므로 이들 기관과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보다 활성화 될 것임

○ 산학연계과정(IRP) 운영

- 자신의 고유 전공분야와 인접하거나 관련있는 분야, 또는 학제간 전공의 성격이 강한 분야, 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강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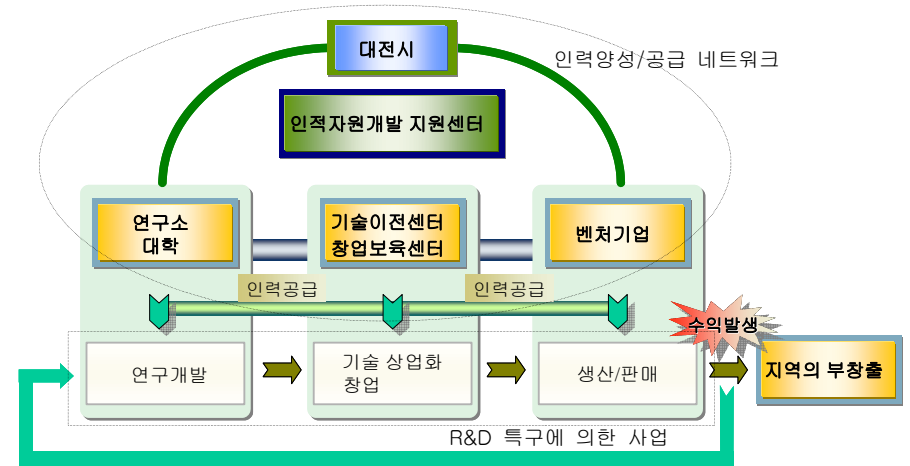
○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도입

- 대학의 각 전공분야에 대해 이론적으로 익힌 전공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체험,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 졸업생들로 하여금 창의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해당 전공분야의 현장 적응능력을 익히게 함

4)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역량 지원

○ 대전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산업체의 기반이 약한 대신에 연구개발 분야의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연구 개발인력의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함

○ 대전시 주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체계구축



<그림 4-4> 연구개발인력 수요 및 공급 체계

○ 우수 연구인력의 조기 발굴 육성 체제 구축

- 대전 지역의 대학들이 중·고등학교의 영재를 선발하여 수월성 교육을 실시
- AP(Advanced Placement) 제도 등 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
- 우수한 연구인력이 조기에 이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대학생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제도 운영

- 지역 연고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전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고급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대전시가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세계의 초일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대전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제도를 실시

- 대학간 M&A, 대학내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한 지역내 대학구조 혁신
 - 대전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단위의 M&A 또는 학과 단위의 통폐합 등을 실현
 -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역내의 대학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초일류 대학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함
- 전공별 연구회 포럼 구성, 활성화
 - 각 대학별로 동일한 학과 또는 전공별로 연구회 또는 포럼을 구성
 - 이를 산업체와 연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학간, 학과간의 실질적인 연구-교육 협력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맞춤형 R&D 및 기술지도, 기술이전 사업
 - 대학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을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체계 구축
 - 학생(학부, 대학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연구 또는 기술개발 인력의 층을 두텁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함

5) 생활권 교통망의 통합적 구축

- 세종시와 대전시 사이의 일일생활권 교통망 구축
 - 대전역-세종시, 대전유성-세종시 간 급행버스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운영, 도시철도 1호선 세종시까지 연장, 유성-세종시 자전거 길 및 올레길 조성 등이 추진
 - 세종시 물류수요까지 담당하는 광역물류거점의 조성(동남권)

- 세종시와의 경계인 충남연기에 호남 고속철 거점역 (용포역)의 설치
- 대전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호남선, 경부선, 대전선을 활용한 계룡시-신탄진 남북철도의 구축 추진

6)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체 주거지 조성

- 세종시 이전 수요자 맞춤형 주택 보급
 - 교육, 의료, 행정, 쇼핑 등의 도시 서비스 공급이 늦어짐에 따라 세종시의 초기 이·정주자 중 다수는 대전시 거주를 대안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임
 - 그 수요는 독신자 주거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주택, 첨단복합단지형 주택 등 다양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유형별로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주택유형의 공급 및 주거지 조성이 이뤄져야 함
 - 독신자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주택은 세종시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특히 도심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거나 주거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서북부(유성구)에는 노은지구(3, 4지구)와 도안신도시지구(2, 3단계)의 조성계획을 수정해 세종시 이·정주자들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저렴 소형 임대주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기착공 되어야 함
 - 동북부의 대덕단지과 대덕밸리,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인근의 둔곡지역 등에는 전문직 종사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첨단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주거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인접 유성일대 쇼핑·위락·여가 기능 확충
 - 서북부 유성구 지역은 세종시로부터 교통접근성이 양호해 실제 세종시(특히 서남부 쪽)의 일일 생활권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초기 이·정주자들은 세종시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각종 도시생활 서비스 수요를 이 일대에서 충족하고자 함에 따라, 이곳을 쇼핑·위락·여가활동의 첨단집

적지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과 함께 고급쇼핑센터의 설치, 전통시장을 문화상품 소비 공간으로 정비
 - 온천문화거리나 공동로테오거리를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로 이미지화
 - 유성온천위락시설의 다양화
 -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신설 및 월드컵 경기장의 이용 활성화 추진
- 광역적 의료·복지 서비스망 구축
- 대전시는 도심형 복합의료서비스지구를 조성해 광역권 차원의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대덕단지나 대덕밸리 내 첨단의료복지지구의 조성, 유성온천관광특구 내 온천의료단지의 조성, 한방의원의 밀집지역을 한방타운으로 지정육성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 도시형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수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해 세종시의 파생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함

7)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체 교육서비스 제공

- 대전시 차원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대전시 일원의 각급 학교에 세종시 이·정주자 자녀의 취학 및 통학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진학 연령대 자녀들의 안심교육을 위한 공교육 및 사교육 시설들의 신설 내지 확충 필요
- 세종시 인근의 유성지역(예, 외삼동)에 카이스트부속고등학교를 설치하거나 대덕연구단지나 대덕밸리 내에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미술, 음악, 무용 등에 관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해선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이용편의를 돕도록 해야 함

- 성인 이·정주자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할 시설(예, 평생학습관)의 확충과 프로그램이용(예, 문화교실)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도 체계화되어야 함

8)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내실화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인재유입 전략적 대응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이를 매개로 한 광역도시권의 실질적 형성을 위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의 분업적 연계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함
- 거점지구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의 설치, 연구원 주거환경 및 연관 산업단지의 조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 인력양성, 활용 등의 역할을 전담
- 국제비즈니스서비스 및 과학문화산업의 육성
- 중추행정기능의 집적과 맞물려 국제비즈니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엑스포공원 등에 국제 컨벤션센터, 다국적기업 지사, 국제교역 및 교류 관련 기관 등을 집중 유치해, 세종시의 국제비즈니스와 하나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함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및 과학비즈니스 기능을,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가미하여, 경쟁력 있는 ‘과학문화산업’으로 육성
- 도시형 첨단산업 집적지의 조성
- 세종시 인근지역(유성)에 저탄소첨단산업지구(예, 신동둔곡지구)를 조성하거나 도심 근방에 소단위 도시형 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도심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와의 공조를 통해 세종시 입지 희망 업체들을 위한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9) Exciting 대전 프로젝트

-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재미와 흥분, 감동과 매력을 주는 도시의 면모를 구축
 - 누구나 가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도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문화 환경 구축
 - 익사이팅 대전 개념을 시정 전반에 반영, 원도심 활성화, 엑스포 재창조 등 사업간, 주체 간, 내용 간 소통과 융합, 통합의 전략 수립, 구체화
- F-문화 코드 반영 문화산업 추진
 - Fusion, Fun, Function, Feel 코드에 기반하여 선택과 집중의 문화산업 양성

10) 도시계획과 행정의 광역화

- 세종시-대전시 부처간 업무협조의 새로운 모델정립
 - 세종시로 9부2처2청이 이주하는 것을 계기로 대전시와 세종시가 하나의 통합된 '국가중추행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선 전용셔틀버스의 운행,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협조방식의 구축, 둔산청사지구의 재정비를 통한 시설 및 기능 보완, 중앙부처 관련 및 지원기관의 유치, 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한 공동행사 개최의 정례화 등이 대전시 차원에서 세종시와 협조를 통해 강구되어야 함
 - 양 도시의 행정타운이 기능적으로 통합되면, 국가중추기능의 중심이 사실상 이곳으로 옮겨오는 효과가 있게 됨
- 연계적 도시계획의 수립·정비
 - 세종시와의 다양한 연계방안이 예측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도시계획이란 제도 틀에 담겨야 함
 - 2006년 이후 변한 여러 여건과 조건을 반영하여 기 수정된 도시기본계획은 다시 한 번 수정 보완되어야 함

- 기본방향은 세종시 초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우면서 광역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데로 설정해야 함
- 연계방안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담아내기 위해선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상의 주거·문화·교육·상업·의료·관광 부문 전반이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폭 재정비함
- 도시행정의 협력: 정보·인력의 교류 및 협의체의 가동
 - 세종시의 조성과정에서 대전시와 세종시 사이의 행정협조 내지 공조가 불가피
 - 행정협조 대상으로 세종시 이·정주자를 위한 정보의 공유 및 공동제공, 연계사업의 공동추진, 인력교류, 도시계획의 협의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협조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도시가 참여하는 (가칭) '도시행정협의체'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협의체는 단기적으로 두 도시 간 행정협조 사항을 주로 다루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취급해야 함
-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
 -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광역권 차원의 관광거점 기능을 선도적으로 수행
 - 대전시내의 생태하천, 유성온천지구, 청사지구, 대덕엑스포지구, 대덕벨리, 도심쇼펍센터, 역사박물관, 전통시장, 사적지, 올레길, 걷고싶은거리 등을 주제별로, 권역별로 엮어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
 - 세종시와 연계되고, 나아가 백제문화관광벨트와도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11) 우수인재 유인을 위한 문화정책

-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여건 조성

○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활동 활성화

- 지역의 기초창작 예술인의 처우 및 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예술인이 대전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창작 활동 환경 조성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향수 인프라 구축·운영

- 지역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찍부터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전시·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험 교육 확대

○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기량을 닦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형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확충
- 전문·아마추어 예술인이 스스로 공연장 내부를 자유롭게 개조하여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손쉽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함

○ 고등 문화예술 아카데미 설립·운영

- 새로운 창작 예술인의 교육만이 아니라, 조명, 무대장식, 전시기획 등 문화·예술관련 전시 및 공연 전문 스텝을 양성·배출·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감수성을 자극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수(관광) 여건 조성

○ 다양한 국제적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이벤트 개최 적극 장려

- 대전에서 다양한 세계 여러 국가의 특성 있는 문화·예술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
- 대전시민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상시적으로 체험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경험을 관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전

○ 밤의 교류 문화공간 활성화

- 비공식적인 밤의 시간대에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찾아서 보낼 수 있는 문화적 생활공간(카페, 소극장 등) 확충

○ 시민 생활 공감 문화예술 환경 조성 정책 강화

-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강화
- 작은 도서관 조성·운영 활성화,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대청호주변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 및 관광 자원화, 시민 생활체육센터 건립 추진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먹거리와 명소 개발

- 관광자원으로 개발,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연계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지역특성의 관광 환경 구축

참 고 문 헌

- 강현수(2010).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발전방안,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충남발전연구원.
- 대전발전연구원(2008). 대전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방안.
- 대전발전연구원(2008).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2011).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대전광역시.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2008). 대전지역 창조인재 양성방안.
- 도명식(2012). 세종시 출범에 따른 광역교통 연계방안. 대전발전포럼 2012년 봄호. 통권 40호.
- 박천보(2012). 세종시 건설초기 대전시 도시계획의 발전방향. 대전발전포럼 2012년 봄호. 통권 40호.
- 임병호(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전발전연구원.
- 정선기(2012). 세종시와 상생하기 위한 대전의 문화정책. 대전발전포럼 2012년 봄호. 통권 40호.
- 조명래(2012). 대전시와 세종시의 연계협력. 대전발전포럼 2012년 봄호. 통권 40호.
- 통계청 자료 : 주민등록 전입, 전출인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 고용보험 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 실태조사

정책연구보고서 2012-02

스마트 인재관리를 통한 대전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4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